

## “1만원 혹은 1000만원짜리만 팔린다” 낄 틈 없는 ‘깡 점포’

명품·저가 ‘불티’ 증가제품 외면  
코로나發 보복소비 ‘K자 양극화’

‘1000만 원짜리 또는 1만 원짜리만 팔린다.’

최근의 소비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싼 제품에만 소비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여행 비용을 고가 제품에 지출하는 보복소비의 붓물이 터진 것이 고가 명품의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다. 소확행(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부담 없는 가격에 만족감을 주는 초저가 제품 역시 각광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가 보복소비와 초저가 제품 판매가 동시에 늘면서 소비지형이 ‘K자형 양극화’를 그리고 있다. 소비심리는 회복세이지만, 비싸거나 싼 제품에만 극단적인 몰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3.0포인트 상승한 105.2로 집계되면서 3개월 연속 100을 넘겼다. 2018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소비는 살아났지만, 토종 브랜드보다 해외 명품이 먼저 특수를 누렸다.

‘3대 명품’으로 불리는 일명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가 지난 한 해 국내에서 쏟아낸 돈은 2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의 지난해 한국법인 매출은 각각 4190억 원, 1조467억 원, 9296억 원을 기록했다. 백화점에서 올해 1~5월 명품 매출 증가율은 50%대에 달해 전년 대비 2배를 웃돈다.

저가 제품도 잘 팔렸다.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업체) 브랜드 탑텐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28.7% 증가한 4300억 원을 기록했고, 패션 플랫폼 기업으로 시작해 최근 서울 홍대에 오프라인 매장을 내며 차세대 SPA 브랜드로 떠오른 ‘무신사’의 PB ‘무신사 스탠다드’ 매출도 지난해 1000억 원을 돌파해 전년보다 60%가량 늘었다. 저가 대상으로 유명한 다이소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명품도, 저가 상품도 아닌 이른바 ‘깡 상품’이나 ‘깡 점포’들은 여전히 코로나 블루에 시름 중이다. 코로나 이후 영업제한에 직격탄을 맞은 동네의 작은 상점들은 온라인 업체나 온라인에 밀린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고 있다. 한때 ‘준명품’으로 불렸던 국내 토종 중견 패션 잡화기업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MCM은 5000억 원대 브랜드에서 3000억 원대로 위축됐고, 루이까포즈와 메트로시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 현재 그룹은 별 회사

Stakehol



‘넷제로’ 외친 최태원  
“SK가 먼저 뛰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2일 경기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열린 ‘2021 확대경영회의’에서 “모든 방법론을 유기적으로 담아낸 ‘좋은 파이낸셜 스토리’를 완성해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얻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룹 차원에서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를 조기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 SK종합화학 ‘페트 재활용’ 혁신기술 확보

美 해중합기술 보유 2대 주주로

SK종합화학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그린밸런스 경영의 실제적 강화를 위해 페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북미 루프인더스트리(Loop Industries)에 총 5650만 달러(약 630억 원)를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했

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SK종합화학은 루프인더스트리가 보유한 혁신 기술인 해중합(Depolymerization)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해중합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아시아 지역 내 재활용 페트(r-PET) 생산·판매 독점권을 갖게 된다.

루프인더스트리는 해중합 기술 특허를

보유한 나스닥 상장사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캐나다 및 유럽에 재생 페트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SK종합화학은 페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폐페트를 반복 재활용해도 품질 변화가 없는 친환경 기술인 화학적 분해 기술에 주목했다. 이 중 루프인더스트리가 보유한 해중합 기술은 화학적 분해 기술 중에서도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다. ▶10면에 계속 김바리 기자 kimstar@

## 은행 DT빅뱅 10년, 7500명 짐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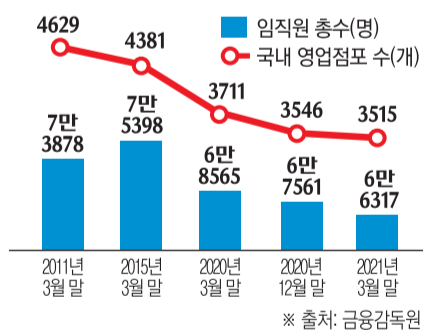
금융권, 인공지능·무인점포로 대체  
‘비대면 집중’ 점포수 1114개 줄어

시중은행이 ‘디지털 전환(DT)’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외형적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거센 변화의 파고를 맞고 있다.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일반화하면서 은행은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급격한 디지털화로 인력 다이어트가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신입 공채는 옛말이 됐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대는 50대에서 4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적게 뽑고 많이 나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임직원은 7500여 명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점포도 1100여 개나 사라졌다. 그 자리를 인공지능(AI)과 무인점포가 대신하고 있다.

23일 이투데이가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3월) 기준 시중은행 점포 수는 3515곳으로, 2011년 3월(4629개)과 비교하면 1114곳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임직원 수는 6만 6317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3월(약 7만 3878 명)과 비교하면 7561명이 줄었다. 점포와 임직원 수 감소 추세는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올 1분기에만 1244명의 임직원이 줄어드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까지 260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국민은행이 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는

시중은행 영업점포·임직원 현황  
(기간: 2011년 3월~2021년 3월)



행 511명, 우리은행 468명, 농협은행 496명, 신한은행은 1월과 6월 두 차례 각각 220명, 13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희망퇴직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50대 직원들을 위한 제도로 여겨졌다. 최근에는 40대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만 49세부터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신청 가능 연령을 지난해 1964~1967년생으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는 1965~1973년생으로 조정하면서 만 48~49세들을 희망퇴직 범위에 포함했다.

인력 감축과 영업점 축소는 은행들이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 비대면 서비스 집중화 전략을 펴왔다. ▶5면에 계속 김범근 기자 nova@

“평생 무료로 쓰는  
결제단말기가 있다고?”

# 어디서 그런 POS가 나와?

## IBK에서

IBK기업은행이 만든 모바일 POS 앱 하나면 스마트폰을 POS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도, 설치도, 유지비용도 모두 무료!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 IBK BOX POS

**POS 모드**  
메뉴 관리, 테이블 주문 관리 등 일반 POS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매출 입금확인**  
가게 매출이 카드사에 정상 매입되었는지, 대금 입금일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모드**  
금액 입력 후 결제할 카드나 스마트폰을 사장님 스마트폰 가까이 대면 결제 완료

**일간 재무리포트**  
일별로, 시간대별로, 메뉴별로 판매현황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283호(2021.06.14) 유효기간(2022.06.13)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BOX POS 고객센터(☎02-729-76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양행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 추진

민주당 가상자산 TF 첫 회의  
정부에 발의 법안 검토 요청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도



박완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국회에서 첫 TF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 등록제를 담은 '가상자산법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인가제를 도입하는 가상자산법률 대표 발의한 상태다. 두 의원은 금융위가 인가권을 쥐면 사실상 금지에 가까워진다는 공통 인식이 있는 만큼 김 의원의 등록제 법안이 중심이 돼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

관관리업에 대해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 검토를 마치면 김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마련된 대안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오는 대로 정무위에서 법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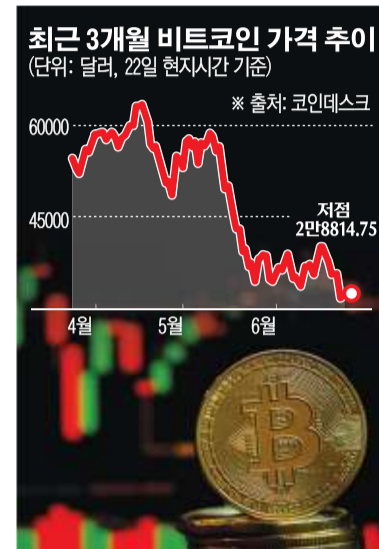
TF는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투자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9월 24일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고 유

에 기한을 고려해 9월까지 현장을 점검하며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에 많은 숙제를 줬다. 필요하다면 해외 자금세탁 등에 관세청도 관여할 수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지만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은 단속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이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람이 663만 명이고 거래금액도 23조 원에 이르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 무너지는 가상화폐 '두 번째 겨울' 오나

비트코인 올해 상승분 반납  
도지코인 고점 대비 76% ↓  
잡코인 상폐 등 시장 쑥대밭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통했던 3만 달러(약 34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 다시 3만4000달러 선을 회복하며 일부 낙폭을 만회했지만,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도 동반 급락하면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가상화폐의 겨울'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시장은 주요 가상화폐 가격 폭락은 물론 잡코인 상장 폐지까지 겹치면서 쑥대밭이 된 상태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만 8814.75달러까지 추락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선 밑에서 거래된 것은 1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셈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중순 6만 4829달러를 터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나게 됐다.

다른 주요 가상화폐들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달 4100달러 선을 찍으며 올해에만 466% 폭등했던 이더리움은 이날 1900달러 선 밑으로 추락했다가 간신히 2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윗으로 주목받았던 가상화폐 도지코인도 24% 넘게 폭락하며 0.17달러까지 내려갔다. 특히 도지코인은 지난달 기록한 고점 대비 약 76% 폭락해 같은 기간 주요 가상통화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5월 정점을 찍은 이후 1조3000억 달러(약 1480조 원) 증발했다. 가상화폐 버블이 3년 만에 다시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18년 비트코인은 1만6800달러대까지 올라 갔다가 연말 3000달러 선으로 주저앉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좋은데도 현재 시장 상황도 2018년 폭락 때와는 다르다며 최근 시장 움직임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

다. 그러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비트코인이 차트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는 '데드크로스'를 통과했다면서 기술적 약세장 진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 소식이 새로 나올 경우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업비트가 18일 24개 코인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등 주요 거래소들이 잡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더 냉각시켜 투자자들의 손해가 겹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신구민(가명, 29세) 씨의 코인 평가액은 반토막이다. 솔라리서 시작된 코인 투자. 남달처럼 돈 복사의 꿈을 안고 계좌를 개설했다. 차트와 뉴스를 오가며 수집한 정보들로 나름 알차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적은 코인, 실물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골라 꾸렸다.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51.43%. 월급에서 다달이 모은 돈이 증발했다. 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외증에도 마음을 다잡았다. 이 겨울도 지나가리라 믿었다.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 싶어 '준비(끝까지 버티기)' 했지만 여전히 차트가 파랗다.

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페이스북 북 A 코인 모임에선 속속 본인들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공유하고 있다. 수익률 -90%, -89%는 예사. -50%는 내보이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박소은 기자 gogumee@

농협60주년  
60th Anniversary

국산김치의 명작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안전한

## 우리 농산물로 만든 농협김치

### 건강하고 맛있게!

농협김치는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듭니다

전국 각지 HACCP 인증시설에서  
지역별 특색을 담아 농협이 정성들여 만듭니다.

경기농협식품 오색소반

충주수안보농협 김치

아산선도농협 김치

진안부귀농협 김치

해남화원농협 이말은김치

농협김치 전에 응원농협

농협아름찬김치

김치 고품 브랜드

순천5일농도김치 순천순천농협

제품 구매처 ▶ 농협몰(www.nonghyupmall.com) 검색창에 '농협김치'를 검색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알림**

##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1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폐자원활용 방안

"폐자원에서 찾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치"

**6월 24일(14:00~18:30)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1F)**

이투데이는 (재)기후변화센터와 함께 국내외 기후환경 및 에너지 전문가를 초청해 탄소중립시대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과 지속가능한 폐자원 활용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limae Energy Summit Seoul, CESS) 2021' 행사를 오늘 개최합니다.

- 주제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폐자원활용 방안 "폐자원에서 찾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치"
- 후원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서울특별시, 기상청
- 문의
- 이투데이 사입부 02-799-2683

# “마트·온라인에 손님 다 뺏겨” 슈퍼 사장님은 ‘한숨’

## 프로 ‘소비 양극화’ 직격탄 맞은 골목상권

“도매상들 말로는 동네 슈퍼마켓들이 죄다 망했다고요. 망한 슈퍼 점포에는 편의점이 들어온다니요.”

서울 마포구 대학가에서 10년 동안 20평 남짓한 동네 슈퍼를 운영해온 사장 김모 씨에게 근황을 묻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22일 만난 김 사장은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채 안 되는 날이 많다고 토로한다. 그는 “10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하루 매출이 20만 원이었고, 3~4년 동안 고생해서 하루 150만~200만 원까지 끌어올렸는데, 최근 손님이 줄면서 10년 전보다 매출이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네 슈퍼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김 사장은 요즘처럼 힘든 때는 없었다고 말한다. 언택트 소비 증가에 소량 구매까지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가 늘면서 단골들마저 발길이 끊기는 것이 요즘이다.

김 사장은 “우리는 그야말로 단골 장사로 먹고사는데, 요즘은 인터넷 등에서 죄다 싸게 파니 학생들도 잘 안 온다”면서 “처음엔 편의점에 고객을 뺏겼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에까지 뺏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른바 ‘긴 점포’들이 울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기업 브랜드 편의점에 이어 최저가를 앞세우는 이커머스까지 동네상권에 뛰어들면서 골목 시장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마포구 염리동 인근의 한 과일가게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매대에는 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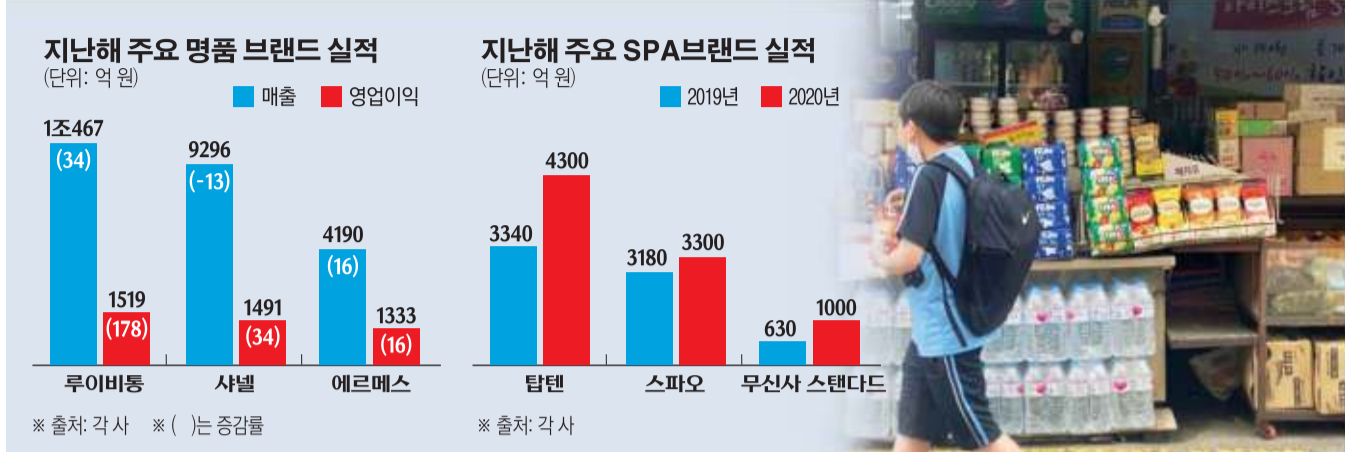
하루 매출 10분의 1로 떨어져 동네슈퍼 망한 자리엔 편의점 “싼 가격·좋은 품질 자부하지만 대기업을 무슨 수로 이기겠냐”

참외, 멜론 등 여름 제철 과일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지만 손님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청과’ 사장 윤모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체감 경기를 묻자 “예전과 상황이 아주 다르다”며 미간부터 찌푸렸다.

윤 사장은 아버지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30년 동안 과일 장사를 했다. 새벽시장에서 과일을 직접 경매받아 판매하는 그는 좋은 과일을 고르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30년을 버텼었다. 10년 전만 해도 과일 품질을 믿고 고객들이 일부러 찾아왔지만, 2~3년 전부터 온라인 장보기가 본격화되면서 손님 수가 크게 줄었다고 했다.

윤 사장은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1원이라도 더 싸면 그걸 산다”면서 “그나마 있던 상인들도 떠나 황량하다. 상인연합회도 없어서 상권을 살릴 방안을 상의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자본력을 앞세워 당도까지 관리하며 계약재배를 하는 대형마트나 이커머스와 경쟁한다는 건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롯데마트 등 전통 유통기업부터 세븐일레븐, GS



리테일 등 편의점까지 배송경쟁력은 물론 신선식품을 강화하며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실정이다. 또 빠르게 배송하는 것은 윤 사장이 흉내조차 내기 어렵다.

윤 사장은 “갈수록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감성이라고 해서 깨끗하고 보기에 좋은 걸 찾지 않느냐”면서 “우리 매대에 있는 물건 전부를 갖다 놔도 대형마트 매대 하나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맛과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쓰여진 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바로

저게 우리 아버지의 감성이다”면서 “우리 물건이 (대형마트나 온라인보다) 따지고 보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지만 보통 소비자들은 잘 몰라 준다.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하고 속도 상한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슈퍼마켓뿐만이 아니다. 식당이나 미용실 등의 동네 점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등포구 신도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모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일 매

장 문을 열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은 수십만 원씩 하는 유명 미용실 체인만 찾는다. 요즘 동네 미용실은 어르신들이나 아이 엄마들만 간간히 오는데 계속 문을 열고 있는 것보다 예약 고객일 때만 여는 게 여유도 있고 매장 운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 씨의 설명이다. 그는 단골들이 예약을 하는 시간에만 잠깐씩 문을 여는 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글/사진 김해지 기자 heyji@

## 잘나가던 ‘매스티지 브랜드’ 몰락

‘세정’ ‘형지’ 등 대표기업 5곳 중 4곳이 지난해 적자

소비 양극화 현상에 매스티지 브랜드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명품을 구입하기 부담스럽지만 고품질을 원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 인기를 누렸던 것이 바로 매스티지 브랜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비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고가와 저가로 시장이 양분되자 가운데 낀 매스티지 브랜드들은 직격탄을 맞아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거나 매출이 반토막 난 브랜드가 줄을 이고 있다.

한때 ‘준명품’이라 불리던 매스티지 브랜드들의 실적이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3일 이투데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표적인 매스티지 브랜드를 보유한 5개사의 최근 4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5개사 모두 매출이 감소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4개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자를 기록했으며, 유일하게 흑자를 거둔 ‘MCM’의 성주디앤디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의 3분의 1 수준인 108억1766만 원에 머물렀다.

잡화 기업보다 의류 기업의 적자 폭이 더 컸다. ‘인디안’ 브랜드로 대표되는 세정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세정은 지난해 2017년 대비 40%가량 줄어든 2963억223만 원이라는 매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영업이익자는 2018년 1085억4842만 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회복세이지만 지난해에도 적자(407억5693만 원)는 면치 못했다.

2019년까지 선전하던 형지도 지난해 적자전환했다. 형지는 2017년 5000억 원대

### 매스티지 브랜드 지난해 실적 (단위: 억 원)

기업명(대표 브랜드)	매출	영업이익
태진인터내셔널 (루이까또즈)	619억	-40억
성주디앤디 (MCM)	3126억	108억
엠티콜렉션 (메트로시티)	616억	-92억
세정 (인디안, 올리비아로렌)	2963억	-408억
패션그룹 형지 (크로커다일레이디)	3052억	-250억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4000억 원 방어에도 실패했다. 지난해에는 3000억 원대 매출에 겨우 턱걸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2019년까지 이어온 흑자도 지난해 249억 원대의 적자로 돌아섰다.

계열사 등의 매출을 포함해 1조 클럽에 나란히 가입했던 세정과 형지가 소비 양극화로 나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매스티지 잡화 삼총사로 불리는 MCM, 루이까또즈, 메트로시티도 고전하긴 마찬가지다. MCM의 성주디앤디는 한때 5000억 원대 브랜드 반열에 오르며 시장을 호령했지만, 지난해에는 3000억 원대 매출에 그쳤다.

루이까또즈의 태진인터내셔널과 메트로시티의 엠티콜렉션은 실적 부진이 더 심각하다. 양사는 2017년만 해도 1000억 원대 브랜드였으나 지난해 태진인터내셔널과 엠티콜렉션의 매출은 각각 618억9516만 원, 615억6404만 원이다. 태진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적자전환했고 엠티콜렉션은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클린 모빌리티
미래기업 리포트

## 세계 곳곳의 길 위에서 현대모비스의 기술은 성장한다

국내 주행시험장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현대모비스의 모빌리티 기술은  
한국, 미국, 스웨덴, 러시아, 중국의 길 위에서도 테스트 중이죠  
나라마다 다른 기후, 노면, 교통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정교함을 더해갑니다

### 모빌리티 세계를 넓히다 현대모비스

스웨덴의  
속도를 달리는 기술

러시아를 달리는  
로보택시

전 세계를 달리는  
자율주행 테스트카

한국 주행시험장

중국

미국

HYUNDAI  
MOBIS

# SK 2030년 '탄소중립' 계열사 나온다



## 사장단 조기 추진 결의 최태원 "선택 아닌 경쟁력 문제" 이해관계자 공감기반 성장 강조 기존 2050년 이전 목표 달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좋은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를 완성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얻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룹 차원에서 '넷 제로' (Net Zero-탄소중립)를 조기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태원 회장은 22일 경기 이전 SKMS 연구소에서 열린 '2021 확대경영회의'에 참석해 '싱크로나이즈' (동기화)를 키워드로 '좋은 파이낸셜 스토리'의 개념과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2일 경기 이전 SKMS 연구소에서 열린 2021 확대경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성을 제시했다. 파이낸셜 스토리는 매출 등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시장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목표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성장 스토리로 고객과 투자자, 시장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공감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최 회장은 회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산업별 메가 트렌드 변화와 글로벌 환경 변화 등 감내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CEO들이 구성원, 투자자, 이사회, 사회 구성원 등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 완성의 주체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개별 회사 차원의 파이낸셜 스토리뿐 아니라 그룹 차원 스토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수소 등을 그룹 차원의 파이낸셜 스토리로 만들었을 때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며 전체 그룹 차원에서 '넷 제로'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향후 탄소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을 고려하면 넷 제로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며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커져 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 CEO들은 이날 글로벌 화두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그룹의 역량을 결집,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보다 앞서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하자는 넷 제로 추진을 공동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SK그룹사들이 2050년 이전('2050-a')까지 이산화탄소(CO<sub>2</sub>) 등 7대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K머티리얼즈가 넷 제로 달성 목표를 2030년으로 잡은 것을 필두로 회사별로

조기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최소 10년 단위로 중간목표를 설정해 그 결과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그룹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약 35%, 2040년까지 약 85%를 줄여 기후 대응 리더십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SK가 탄소감축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2030년까지 65%, 2040년까지 93% 줄이겠다는 것으로 넷 제로 달성을 위한 SK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확대경영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7개 위원회 위원장, 주요 관계사 CEO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외부 투자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경제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SK가 추진하는 파이낸셜 스토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공유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소형모듈원전〉

## "SMR 2030년 상용화, 620조 시장 성장"

###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 부상 두산중, 미국과 상업운전 맞춘 전경련 "정부, SMR 적극 나서야"

주요 국가에서 탄소중립 달성이 화두가 되면서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이 최대 6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원자로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소규모 원전인 SMR는 출력 조절이 유연하고, 응용범위가 넓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SMR 시장은 203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SMR 시장



두산중공업과 손잡은 뉴스케일의 소형모듈원전 플랜트 조감도. 사진제공 두산중공업

규모가 최대 620조 원에 이른다 분석했다.

SMR 시장의 성장은 주요 국가들의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다.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화석 연료

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SMR는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 경제성,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라는 대안도 있다. 하지만 기후 영향

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달리 안정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도 SMR 시장을 키우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 개발에 7년간 32억 달러(약 3조6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은 경제 분야 국가 최고계획인 '제14차 5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로 해상부유식 SMR를 선정했다. 러시아는 이미 세계 최초로 해상 부유식 SMR를 상용화해 작년 5월부터 동시베리아 페넥시에 전력을 공급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영국조차 SMR를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 개발에 앞으로 8년 동안 40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목적 소형원전인 'SMART'를 개발

해 지난 2012년 표준설계인증까지 획득해 놓고 10년째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SMR에 적합한 인허가 체계 미비, 정부의 정책 지원 지연 등 때문이다. 유한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에 주어진 시간과 일조량, 풍량, 수자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SMR,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SMR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2019년에 미국 원자력발전 전문회사인 뉴스케일과 손잡았다. 작년에는 미국 뉴스케일의 SMR 모델이 미국에서 설계인증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SMR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설계 인증으로 두산중공업은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핵심 기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총 720MW(메가와트)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2023년 건설에 착수해 2029년 상업 운전할 예정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다시 마스크 쓰는 백신 선진국, 문제는 델타 변이

### 이스라엘 일주일 만에 착용 독려 英·포르투갈 확진자 90% 델타 美 독립기념일 '코로나 해방' 무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선진국들이 감염력이 강한 인도 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델타' 확산에 다시 시금방역의 고삐를 고쳐잡고 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 만에 전면 해제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시 권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나서서 백신 접종 장려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공격적인 백신 접종으로 일상생활 복귀로 향했던 이스라엘은 인도에서 처음 보고된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약 두 달 만에 최대치인 125명으로 급증했다. 신규 감염의 70%가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귀국하는 사람으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완화해 나가던 방역 대응 수위를 재차 끌어올리고 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국민을 향해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인 이달 중순과는 판판의 대응이다. 이스라엘



전세계를 강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을 통해 외국인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스시스

은 지난 2월부터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 이달 15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했는데 다시 후퇴하게 된 것이다.

영국과 포르투갈 등은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을 델타 변이가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손꼽히는 백신 접종 모범국인 영국은 최근 델타 변이로 연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국은 봉쇄 조치 완화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루고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4~25일 회의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미국도 델타 변이 상륙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

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5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신규 감염 중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6%로 나타났다"며 "이 비중이 2주마다 약 2배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다음 달이면 이 수치가 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최근 백신 접종이 주춤해졌다는 것이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일로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인정했다.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70%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젊은 층의 참여가 부진하다.

변효선 기자 hsbyun@

## 중국산 백신에 발등 찍힌 국가들

### 몽골·바레인·세이셸·칠레 등 과반 접종에도 확진 상위국에

중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믿었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자국민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된 탓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몽골과 바레인, 동아프리카 섬나라 세이셸, 칠레 등이 중국산 백신 접종을 광범위하게 펼쳐 일상 복귀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고 보도했다.

데이터 추적기관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전체 인구의 50~68%가 2차 접종까지 마쳐 접종률에서는 미국을 앞선다. 하지만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국가들은 모두 중국 제조사인 시노팜이나 시노백이 만든 백신에 의존했다. 홍콩대의 진중연 전염병 학자는 "백신이 아주 좋았다면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았어야 했다"며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의학계는 접종률과 발병률이 비례하는 현상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변이 코로나의 빠른 확산과 1

차 접종 후 개인의 부주의, 사회적 통제의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산 백신 접종이 주로 시행된 국가에서 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약 45%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쳤으며 그 결과 지난 6개월간 확진 사례는 94% 감소했다. 세이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이스라엘 역시 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현재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4.95명 수준을 기록 중이다. 반면 세이셸은 백만 명당 716명을 웃돈다.

문제는 이미 90여 개국이 중국산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전 세계가 백신을 맞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제 △화이자-모더나를 맞은 선진국 △아예 맞지 못한 빈곤국 △접종했지만 자국민 보호가 어려운 국가 등 세 부류로 나눌 우려에 처했다. 질병 퇴치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효과 없는 중국산 백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90여 개국은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정맥으로 본인 인증 '화면 속 은행원' 만나 통장 개설

## 신한은행 비대면 창구 '디지털트 브랜치' 가보니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3일 본지 기자가 서울 중구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디지털트 브랜치'를 방문하자, 화상으로 연결된 본점 직원은 이같이 말했다. 두 평 남짓 디지털트 브랜치엔 화상 모니터, 비밀번호 등을 누를 수 있는 키패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손바닥 정맥 인식 장치와 신분증 스캐너 등의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기자가 적금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직원은 최근 출시된 '신한 알쏭 적금'을 추천했다. 이 직원은 대형 모니터에 상품 이미지를 띄우고 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했다. 직접 창구를 찾아 직원과 대면으로 마주하고 적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과 동일했다.  
청약 통장 가입 문의에 직원은 신분증을 신분증 스캐너 위에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통장 개설은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품가입서에 자필 서명한 후 5분 만에 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손바닥 정맥 인식 장치와 신분증 스캐너 등으로

대면상담과 동일한 금융서비스 모니터 줄 그어가며 상품 설명 대기시간 없이 상담 쉽고 간편

본인 확인을 거친 후 금융 상담까지 할 수 있어 화상이었지만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것과 다름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디지털트는 디지털(Digital)과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디지털트 브랜치는 고객이 비대면 창구에서 화상상담 직원과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미래형 혁신 점포 모델이다. 신한은행은 서소문점을 시작으로 여의도 중앙점, 홍제동점, 군자역점, 시흥동점, 화곡역점, 의정부점, 방학동점, 가경동점, 학익동점, 행신 중앙점 등 모두 11곳에 디지털트 브랜치를 설치했다.  
디지털트 브랜치는 △예금, 적금, 유동성 계좌 신규 및 해지 △디지털 창구 서식이 있는 제신고 업무 △IRP 신규 및 해지 △카드 신규, 재발급, 제신고 업무 △신용

대출 신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간단한 업무는 화상으로 가능해 고객은 창구의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 디지털트 브랜치를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은행 직원과의 대면이 부담스러울 경우 디지털트 브랜치를 이용해 화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디지털트 브랜치의 상담 직원은 본점 디지털영업부 소속이다. 상담 담당 직원은 총 6명으로 이 직원들은 화상으로 하루 20여 명의 고객을 응대한다.  
비교적 간단한 업무는 디지털트 브랜치에서 할 수 있는 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 대출 △현금이 필요한 업무 등은 상담만 가능했다. 해당 업무는 디지털트 브랜치에서 처리할 수 없어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해야 한다. 디지털트 브랜치는 고객이 해당 업무를 의뢰하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안내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트 브랜치에서는 주로 이체나 간단한 상담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점차 상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이투데이 기자가 2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디지털트 브랜치'에서 은행직원과의 화상 상담을 통해 신규 통장을 발급받고 있다.

## 인터넷은행, 개발자 모시기 전쟁

### 토스·케이뱅크, 두 자릿수 채용 디지털 전환 시중銀도 가세

제3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 출범을 앞두고 디지털 전문인력 영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점포 축소와 동시에 인력을 감축하는 시중은행도 '디지털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양질의 개발자를 찾고 있다. 국내 금융이 디지털 중심으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집중하면서 단순히 많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소수의 특화된 전문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케이뱅크는 이달 말까지 개인 신용대출,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 UX/UI 기획, 준법감시 등의 담당자를 모집한다. 두 자릿수대 직원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본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도 9월 공식 출범 전까지 인력 확충을 위해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40명인 토스뱅크는 직원을 60명 늘려 약 200명의 인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답러닝 엔지니어·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주택담보대출 상품 기획 및 운영 담당자 등을 수시로 모집 중이다.

인터넷은행은 전체 임직원 중에서 개발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장에 개발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개발자 인력 수요도 덩달아 높아졌다. 문제는 개발자 공급이 수요만큼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 외에도 개발자들은 업계 전반에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시중은행 역시 디지털 인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인력을 줄이면서도 디지털 업무에 필요한 인재를 통해 사업 전략을 바꾸려는 의도다. 은행을 '청년 채용의 희망'이라고 여겼던 시절도 지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시중은행은 점포를 점차 정리하고 인력도 희망퇴직을 통해 줄이고 있다. 단순히 인력 비용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이 파격적인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면서 개발자 인력을 끌어모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고급 인력에 비용을 몰아 쓰겠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금융 시장에선 디지털 인력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데려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시중은행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산 기자 jinsan@

### 은행원 7500명 짐쌌다

▶1면서 계속

사원 선발도 자연스럽게 대규모 공채 대신 디지털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수시 채용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이 시중은행을 크게 자극했을 것"이라며 "디지털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은행의 외형과 업무 방식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지털화와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신한은행은 9월부터 AI 기능을 탑재한 데스크형 스마트 기기를 도입해 일부 영업점에 배치한다. 국민은행도 업무 서비스에 AI를 접목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3월 서울

여의도 신사옥에 'AI 체험존'을 설치하고 AI 키오스크를 선보인 바 있다. 연내 영업점 창구에 AI 은행원을 실제 배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다퉈 디지털 점포도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서울 서소문에 '디지털트 브랜치'를 개설했다. 시중은행 최초로 화상상담 시스템을 적용한 미래형 혁신 점포 모델이다. 2평 규모의 부스 안에 대형 스크린과 화상상담용 카메라, 키패드, 손바닥 정맥 인식 장치, 신분증, 인감 스캐너 등을 설치했다. 설명 확인부터 업무 완결까지 은행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수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향후에는 바이오 인증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안면 인증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 설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절세권으로 이사(ISA)갑니다

절세혜택과 주식거래는 기본  
거기에, 특판 RP 행운까지 -  
확 달라진 ISA를  
지금, NH투자증권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 확 달라진 이사(ISA)

• 가입대상: 만19세 이상 거주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 • 의무보유기간: 3년 • 유형상품: 중개형 ISA 추가, 주식거래 추가  
• 세제혜택: 수익의 200만원 한도 비과세 (초과 금액 9.9% 과세) • 연금 전환 혜택: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일임형 ISA 가입 시 별도의 신탁(일임)보수(연 0.1%~0.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ISA 가입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 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 수수료 적용 기간 이후 수수료는 약 0.084%~0.489%(연리인 매매 기준, 거래금액별, 채널별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이078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1-1036(2021.06.08~2022.03.03)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 정치권 뒤흔드는 ‘윤석열 X파일’ 與 “야권 작성” vs 野 “선동정치”

송영길 “홍준표 의원이 잘 알 것”  
민주당 “尹 전 총장 검증 강화해야”  
국힘 “輿대표가 추측을 사실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담긴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뒤흔들며 치열한 여야 공방을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X파일 존재를 부정하며 오히려 “야당에서 만들었을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구태의연한 선동정치”라고 맞받아치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도 여론을 향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에서 “X파일은 없다. 검증 자료를 제가 나름대로 꼭 정리를 해 보고 있다”며 X파일을 본인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송 대표는 “아마 자체적으로,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의심했다.

송 대표는 복당을 앞둔 홍준표 의원을 가리키며 “홍 의원이 입당하게 될 텐데, 그

가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검찰 후배이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아는 분이 바로 홍 의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었다”며 “윤 전 총장은 국민의 검증 앞에 선 대선주자”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씨에게 충고 한마디”라며 “지질하게 괴문서, 정치공작 운운하지 말고 검찰에 고소하라. 후배 검사들이 어렵히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공세”라며 반격에 나섰다. 황보승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X파일과 관련한 어떤 실체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구태의연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황보 대변인은 “며칠 전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소모적 정치를 하지 말자’던 송 대표 이기에 더욱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X파일을 본 적도 없음을 물론,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성일종 의원도 “송 대표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다고 했으니 그것을 밝혀라”라며 “검증을 해야지 왜 차곡차곡 쌓아 놓는가”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X파일 목적은)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며 “야당이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정권이 사찰하냐’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대표는 X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작전회의?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중 동료 의원들과 얘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추미애 “사람 높이는 나라 만들겠다” 대선 출마 선언...윤석열 저격수 될지 주목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이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대선 국면에서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추 전 장관 덕에 윤 전 총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들러리’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파주 헤이리 잇탈 리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추 전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도 파주 헤이리 갈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당 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며 “저는 그 광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의 등판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과 대결 구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관 재임 시절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등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라임 사태 당시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등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저격수’로 활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근 추 전 장관은 “저만큼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썩 잡는 때”라며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선 과거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대결이 피로감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었기에 추 전 장관의 등판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준상 기자 joooon@

## 국힘·국당 합당 진통...이번엔 ‘물먹인 소’ 논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사무처 노동조합이 국민의당을 향해 합당 전 ‘몸집 부풀리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장을 맡은 권은희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합당 결의에 찬성한 바는 있으나 그 외 어떤 합당 조건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합당 대원칙과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노조는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정당 △특혜와 꿈수 없는 국민 기대에 준하는 투명한 정당 △대선 승리를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당 등 세 가치를 대원칙으로 제시했다.

요구사항으로는 최근 국민의당이 당협 위원장을 추가 임명하고 사무처 당직자를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대선이라는 큰 발을 갈아야 할 시기에 물 먹인 소를 사는 일은 절대 불용한다”며 “직전 합

당 전례(새보수당 합당)를 기준으로 당의 규모에 비례한 합당 조건을 설정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과도한 요구는 당명 변경, 사무처 전원 고용 승계, 안철수 대표의 9억 원 당비 대납 채무 변제 등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올리면서 “합당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당을 물 먹인 소라고 비유하며 비하하는 문제는 합당의 정신을 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상 기자 joooon@

# 모두가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세계로 이어진 30년.

세상 모든 아이들 편에서 함께한  
모두가 굿네이버스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네’로 시작해  
‘네’로 끝나는 하루

다른 사람에게 맞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나요?

일상 속 작은 일부터  
내 생각대로 자신있게  
도전해보세요

나 자신을 찾는 것  
내 자산이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산을 알라

NH자산+



나를 발견하는 자산관리 NH자산+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에서 만나세요



나도 모르게 흩어져 있는  
내 자산과 소비패턴을 한눈에



MY목표를 세운 후  
도전하고 성취하는 재미



나만을 위한 MY보고서로  
나를 발견하는 즐거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1-2991(2021.06.15~2023.06.15) ※ 서비스 관리 부서 : NH농협은행 개인종합 자산관리 Cell

# “법률위반 아냐” ‘상위 2% 종부세’ 공방 가열 “평등권 위반”

## 여성 관련 국제기구 국내에 처음 세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된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방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18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취지를 비취볼 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며 "다른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여당 vs 야당 충돌 홍남기 "GTX-D, 다른 노선과 연계 방안 검토"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 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상위 2%를 정해 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조건을 붙이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법을 추진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정의도 원칙도 다 내다버린 정부·여당의 갈팡질팡 중

부세법 개악안은 문재인 정권 개혁실패의 상징"이라며 "잘못된 표 계산 하나 믿고서 정치를 통째로 부동산 불패신화의 제물로 바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과 관련해서는 "김포-부천 구간이 다른 노선과 연계가 잘 되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김포시에 걸단까지 포함하면 66만 명이 살고 있는데 2량짜리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으로 서울 직결 노선 하나 없이 서울 강남까지 매일 4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

이다. 김 의원은 또 "이건 교통 정의, 공정의 문제"라며 "김포골드라인은 혼잡도 285%로 100명 타는 차량에 285명이 탄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추경 규모에 대한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

여성가족부는 23일(한국시간)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유엔위민 CGE)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양측이 한국 내 유엔 위민 CGE 설립에 합의하고 소재지 협정 등 필요한 절차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력 기간은 양측의 서명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여성가족부와 유엔여성기구는 여성 인권 보호 및 여성 역량강화 등 성평등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 위민 CGE를 한국에 정식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 맥락에서의 성평등 관련 정책 개발·연구 △센터 전문가 등 대상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운영, 기타 양측의 합의사항에 따른 활동 등을 유엔위민 CGE의 기능으로 설정했다.

유엔위민 CGE는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여성 관련 국제기구다. 여가부는 유엔 위민 CGE 유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성평등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엔위민 CGE는 유엔여성기구 산하의 국제적 연구·교육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및 제도 개발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리더십·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태 지역 내 여성 관련 공동의제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김소희 기자 ksh@



내 일자리는 있을까 23일 경기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서학개미 열풍에 美투자 5000억 달러 '홀쩍'

(작년 말 5345억 달러)

### 美 주가 상승·증권투자 확대 영향 일본인 '한국 투자'도 역대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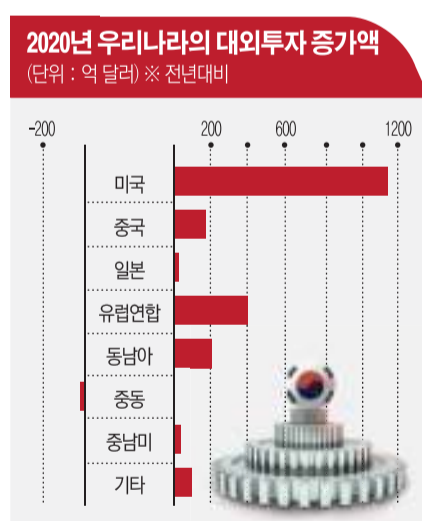
서학개미(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열풍이 미국으로 집중되면서 대미투자 잔액과 증가 폭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일 경제전쟁과 협한(한국 혐오) 분위기 속에서 국내투자자금을 뺀 일본도 1년 만에 돌아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에서 지난해 말 미국에 대한 투자는 5345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년 말 대비 증가 폭도 1148억 달러에 달해 직전 최대치였던 2017년(+713억 달러) 기록을 뛰어넘었다. 부문별로 보면 증권투자가 871억 달러 늘어난 3450억 달러로 가장 컸다.

미국 주가 상승과 증권투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유럽연합(EU)에 대한 투자도 403억 달러 확대된 2919억 달러를 보였다. 역시 증권투자가 168억 달러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동남아(2015억 달러), 중국(1555억 달러), 일본(514억 달러), 중남미(1018억 달러) 지역에 대한 투자도 모두 늘어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동지역만 3억 달러 감소한 277억 달러에 그쳤다. 2019년 31억 달러가 줄어드는 등 최근 3년째 중동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투자에서 21억 달러 줄어드는



등 비거래요인이 주된 이유였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보면 전 지역에서 각각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은 4055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증가폭도 842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대 증가를 보였던 2017년(925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증권투자가 744억 달러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EU는 763억 달러 증가한 3774억 달러를, 동남아는 704억 달러 늘어난 2933억 달러를 기록해 잔액과 증가폭 모두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일본도 144억 달러 확대된 1032억 달러로 잔액과 증가폭 모두 역대 최고·최대치를 경신했다. 2019년엔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 13억 달러를 빼가면서 3년 만에 감소했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 금감원장 7년 만에 내부승진하나

### 김근익 수석부원장 급부상 외부 후보군 노조 반대 무산 승진엔 3번째 부원장 출신

차기 금융감독원장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근익(사진) 수석부원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조의 반대 등으로 외부 출신 후보군이 결국 무산되면서 내부 승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차기 금감원장에 오르는 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안팎으로 동조론이 일고 있다. 금감원장 자리는 지난 5월 초 윤석현 전 원장이 퇴임한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윤 전 원장이 퇴임한 이후 김 수석부원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차기 금감원장 자리를 놓고 외부 출신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에서 교수 출신을 반대한 가운데 일부 후보의 경우 평판 문제가 나오면서 결국 그간 언급됐던 후보들이 오히려 원장 후보자체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겼다.

금감원장 임명이 차일피일 길어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김 수석부원장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기간에



김 수석부원장이 조직을 잘 이끌고 있는 만큼 현재 기조를 유지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종합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 및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에 맞춰 일관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이 되면 이장재 전 원장, 최수현 전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수석부원장을 지낸 금감원장이 된다. 제4대 원장(2003년 3월~2004년 8월)을 지낸 이 전 원장은 수석부원장을 지낸 이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법인 고문을 거쳐 금감원장을 맡았다. 제9대 원장을 지낸 최 전 원장(2013년 3월~2014년 11월)은 수석부원장에서 바로 승진해 금감원장에 올랐다. 김 수석부원장이 이번에 원장이 된다면 수석부원장에서 원장으로 곧바로 승진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내부 승진은 7년 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에서 후보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 수석부원장이 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아기 울음소리 '뚝' 4월 출생아수 최저

### 18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4월 출생아수가 2만2000명대로 떨어지면서 4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서 4월 출생아 수가 2만282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501명(2.2%) 줄었다고 밝혔다. 3월(-0.6%)에 이어 4월에도 출생아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1~4월 누계 출생아 수는 9만333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7% 감소했다. 지난해 1~4월 누계 출생아 감소 폭은 11.1%였다.

4월 지역별 출생아 수는 부산, 광주, 대전, 경기에서 늘었다. 1~4월 누계로는 광주(7.2%)와 경기(0.5%)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4월 2만508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11명(1.7%) 증가했다. 1~4월 누계로는 10만2645명으로 1.7%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18개월째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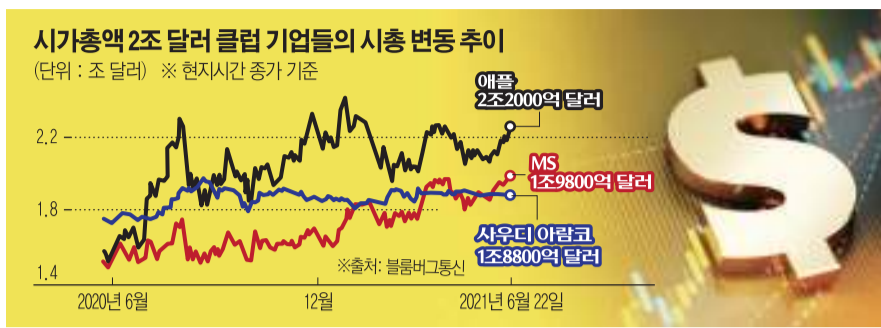
혼인 건수는 1만5861명으로 192건(1.2%) 늘며 짝짝 반등했다. 부산, 대구, 인천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다. 혼인 건수는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혼인 건수가 줄어도 통계에선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1~4월 혼인 건수는 6만3877명으로 두 자릿수 감소(-13.6%)를 지속하고 있다.

이 밖에 4월 이혼 건수는 9038건으로 219건(2.4%) 감소했다. 1~4월 누계는 3만4244건으로 1.9% 증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MS '시총 2조 달러 클럽' 합류

코로나 기간 수요 확대 주가에 반영  
 증 1.2% 오르며 시총 최고가 터치  
 아랍코·애플 이어 세계 3번째 기록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애플에 이어 시총액 2조 달러(약 2270조 원) 클럽에 합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재택근무 등으로 사람들의 컴퓨터 활용이 늘면서 회사의 매출과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 상승한 265.51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2% 오른 265.55달러에 달해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상승폭이 줄면서 증가 기준으로는 2조 달러에 조금 모자랐지만, 현 추세라면 증가로도 2조 달러 달성은 시간문제다. 17일 256.06달러였던 주가는 일주일 만에 4% 가까이 상승했다. 블룸버그는 "애널리스트 90% 이상이 '매수' 의견을 내놓았다"며 "평균 목표가는 현재 수준에서 11%의 상승 여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애플(약 2조240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이고 전 세계로는 세 번째다.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12월 기업공개(IPO) 이후 잠시 2조 달러를 기록한 후 현재 1조

88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2조 달러 클럽에 합류하고 나서 계속 세계 1위 시총 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마존(1조8000억 달러)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1조6000억 달러)도 2조 달러 클럽 합류가 유력시된다.

MS는 1조 달러를 기록한 지 불과 2년 만에 시총이 두 배 늘었다. 기업공개(IPO) 후 첫 1조 달러에 도달하기까지 33년이 걸린 것과 대조적이다. MS는 2021 회계연도 3분기(올해 1~3월) 매출이 전년보다 19% 증가한 417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5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CNN방송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MS의 컴퓨터와 게임 시스템, 클라우드 플랫폼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실적과 주가를 높였다"며 "주가는 코로나19 봉쇄가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64% 올랐다"고 설명했다.

MS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반독점 혐의

조사와 기업분할 압박, 최근 빌 게이츠 창업자의 성 추문 등으로 잡음을 일으켰지만, 투자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호실적에 더 주목했다.

24일에는 차세대 윈도우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개발자와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10년 내 중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를 공개할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10년간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고객이 탄력적이고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리어브릿지인베스트먼트의 힐러리 프리쉬 선임 애널리스트는 "MS는 게임과 클라우드,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많은 부문에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과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없을 것" 조기 금리인상 선그은 파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다시 한번 일축하며 '비둘기파' 면모를 과시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가 최근 급격하게 뛴 곳들은 중고 자동차나 트럭처럼 경제 재개 영향을 직접 받은 분야들"이라며 "이러한 영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으며 더욱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곧 상승세를 멈추고 궁극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물가상승 움직임이 경제 재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야에서 초래된 것만 반드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파월 의장의 진단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가능성을 두려워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지표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연준이 통화완화 정책을 고집하다 1970년대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준은 1970년대 당시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폭등한 가운데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했다가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파월 의장은 "그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은 아주, 매우 낮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2일(현지시간) 하원 코로나19 위기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스

준은 물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2%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재개에 따른 단기적 불균형과 가격 역전 현상으로 올해 물가가 3%가량 오르겠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목표치인 2%에 가깝게 내려갈 것"이라며 파월 의장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파월의 '비둘기파' 발언에 시장은 안도했다. 미국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으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파월 의장의 임기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그는 4년 추가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확답은 피했지만, 의장직 유지 희망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백만장자 5608만명, 전세계 성인中 1%

주식·집값 상승 1년새 520만명 늘어... 한국 105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지난해 전 세계에서 520만 명의 백만장자(부채 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가 새로 탄생했다. 주식과 주택 가격 상승 영향으로 자산에 따른 부의 격차가 심화했다는 평가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말 기준 세계 백만장자 수가 5608만 명으로 1년 새 520만 명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백만장자 수가 처음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1%를 넘어섰다.

지난해 새로 증가한 백만장자 가운데 3분의 1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전체 인구의 8%가량이 백만장자다. 인도, 러시아가 1000명당 한 명, 중국이 200명당 한 명 꼴인 것과 대조된다.

코로나발(發) 경기침체에도 재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주식과 주택 등 자산 가치를 끌어올린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해 전 세계 가계 자산 증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완전히 괴리됐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쳤지만, 작년 6월 말부터 자산 가격이 급등해 상황이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기준 한국 백만장자는 105만 명으로 전 세계 백만장자 중 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백만장자 수로는 세계 11위 수준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당신의 능력개발에 디지털 혁신을 더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음식물쓰레기에 군침 흘리는 가전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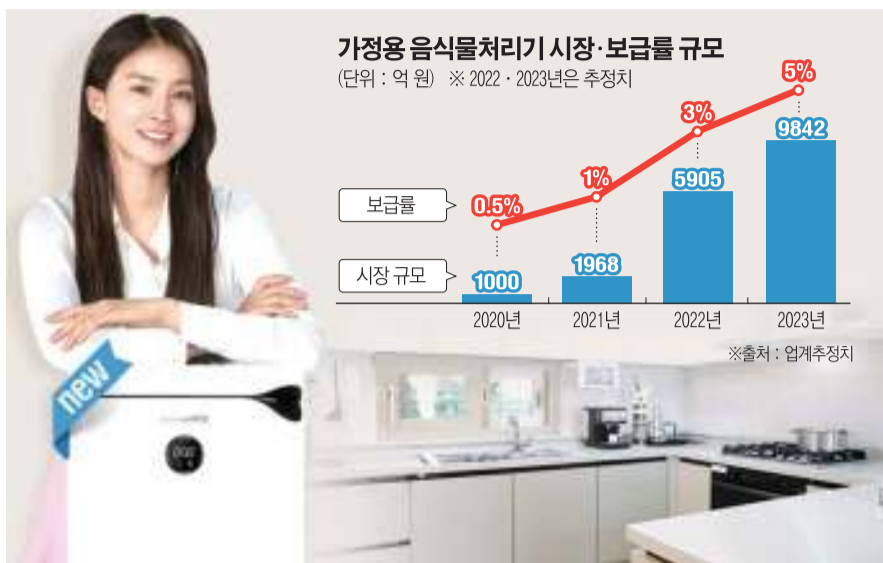
집밥족 늘며 음식물처리기 수요↑  
삼성 '더 제로' 상표권 출원 등  
중견·대기업 시장 진출 잇따라  
처리방식 새 기준 정립이 분수령

국내 가전업계가 거실, 안방 가전을 넘어 주방가전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시장 진출도 저물질하고 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더 제로'라는 상표권을 출원하며 음식물 처리기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더 제로 상표 설명에 가정용 전기식 음식물 쓰레기 받기, 음식물 폐기물 감량처리, 음식물 쓰레기 미생물 처리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주방 가전과 어울리는 '비스포크'를 적용한 음식물 처리기를 선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냉장고와 같은 백색가전에서 벗어나 직화오븐, 인덕션, 식기세척기, 정수기까지 진출한 삼성전자가 음식물 처리기 신제품까지 출시해 주방 가전 라인업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캐리어에어컨은 최근 바이오 음식물 처리기 '클라윈드 위즈'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은 캐리어에어컨만의 단독 특허 기술로 배합 및 제작한 미생물 '바리미'가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앞서 린나이는 습식분쇄와 미생물 분해 방식을 결합한 싱크대 일체형 '비움2'를 선보였다. 한샘 역시 부엌 싱크대와 연결해 음식물을 분쇄해 미생물로 처리하는 방식의 '오큐(O' Cue)'를 판매하고 있다. 계절 가전으로 유명한 신일전자는 올해 여름 음식물 처리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음식물 처리기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집밥족'이 늘면서 함께

커지고 있다. 롯데하이마트가 집계한 지난해 음식물 처리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요 업체들의 매출 기준으로 추산한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3월 전국 2300만 세대를 기준으로 음식물 처리기 보급률은 약 1% 내외로 추산된다. 이는 연간 20만~30만 대가 판매되는 규모다. 2023년경에는 보급률이 5%를 넘어서며 시장 규모가 1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음식물 처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중견, 대기업들의

음식물 처리기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물 처리기는 말려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건조식, 여기에 분쇄를 결합한 건조 분쇄식,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처리하는 습식분쇄식,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하는 미생물식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 배출하는 방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정상적인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를 1차 처리기에서 갈아낸 뒤, 2차 처리기를 통해 80%를 걸러내고, 나머지 20%만 하수구로 배출해야 하는데, 2차 처리기를 제거한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통신판매중개 사이트(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를 통해 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를 분석한 결과, 62.3%에 해당하는 154개 제품이 불법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하수구로 찌꺼기를 내보내는 모든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업계 관계자는 "음식물 처리 방식을 놓고 합법성과 효율성, 비용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새 기준이 정립되면 대기업들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다퉈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SK중화 '페트 재활용' 기술 확보

▶1면서 계속

이 기술은 저급으로 재활용되는 오염된 페트병이나 잔량 소각이 불가피한 폴리에스터 폐섬유를 저온에서 화학적으로 분해한다. 순수한 원료 상태로 되돌려 신제품과 같은 품질로 100% 재활용할 수 있다.

페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에서는 페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계적·화학적 방식 중 화학적 방식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화학적 방식은 해중합 및 열분해 기술 위주로 글로벌 화학업체들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SK종합화학은 자체 기술과 더불어 선진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해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SK종합화학과 루프인터스트리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재생 페트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사는 내년 합작회사를 지어 2023년 내 국내에 연산 8만4000톤(t) 규모의 페페트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총 4곳에 재생 페트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

이번 투자를 마무리하면 아시아에서만 연간 40만 톤 이상의 페페트를 처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페페트 병의 총량인 30만 톤을 모두 재활용하고도 남는 규모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전 세계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글로벌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품질 재생 페트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종합화학은 다양한 페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해중합 기술은 SK종합화학이 1월 협력 관계를 구축한 미국 브라이트마크의 열분해 기술과 더불어 SK종합화학의 핵심적인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된다.



# DSCC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청사진 그린다

마이크로 LED 등 전문가 초청 11월 3~4일 가상 포럼 개최  
몰입형 AR·VR 헤드셋 구현 디스플레이 제조 상용화 논의

'메타버스(Metaverse·초월과 현실 세계의 합성어)'가 전자업계에서 대세로 떠오르는 가운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조사 업체인 DSCC가 첫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디스플레이 포럼'을 연다.

23일 DSCC에 따르면 오는 11월 3~4일 이틀간 'AR/VR 디스플레이 포럼'이 개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번 행사는 가상 이벤트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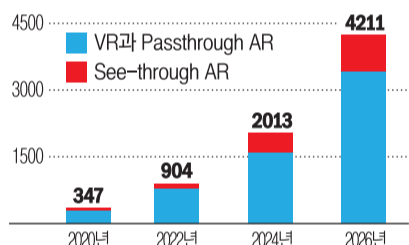
DSCC 측은 "몰입형 AR 및 VR 헤드셋을 구현할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최신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몰입형 헤드셋은 고해상도와 넓은 시야각 및 긴 배터리 수명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연사들의 라이브 프리젠테이션, Q&A 세션, 참가자들간의 네트워킹 및 인터랙티브 전시 공간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DSCC는 이 분야 전문 연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고해상도와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스캐닝 기술, 고급 3D 디스플레이 등이다.

VR 및 AR 헤드셋 매출 전망 (단위: 100만 달러) ※ 출처: DSCC



DSCC 디스플레이 연구이사 기욤 찬신(Guillaume Chansin)은 "현재 스마트폰용으로 개발된 디스플레이 기술은 AR·VR 헤드셋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AR·VR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시장에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인 이유"라고 밝혔다. DSCC는 AR·VR 디스플레이의 연간

매출이 연평균 52% 성장해 2026년에 42억 달러(약 4조7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AR·VR 시장 활성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온라인 기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덕분이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과 현실을 접목한 가상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가 최근 주목받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2018년 VR 헤드셋 '오디세이 플러스' 이후로 VR 시장에서 철수했으나, 올해 새로운 VR 헤드셋(가칭 갤럭시 VR)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은 내년 2분기에 처음으로 고글 형태의 'A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 LG화학 신입사원 메타버스 직무교육

LG화학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온라인 가상공간 플랫폼을 활용해 석유화학 사업본부의 온라인 신입사원 교육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신입사원 교육까지 확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타버스 신입사원 교육은 석유화학사업본부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신입사원을 위해 마련한 연락처 프로그램의 하나다.

가상 교육센터는 대강당과 직무교육 수강방, 강의실, 휴게실, 식당 등으로 구성해 현실과 비슷한 교육·소통 환경을 조성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입사한 생산, 연구·개발(R&D), 영업, 공무, TS&D(Technical Service & Development), 스태프 조직 신입사원들은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배치된 직무 정보와 회사 생활 팁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한화, 삼성 보유 '한화종합화학' 지분 1兆에 인수

6년 만에 양사 '빅딜' 마무리  
신사업 투자 집중·상장 재추진  
"미래형 기업 체질 개선 본격화"

한화가 삼성이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삼성물산 20.05%·삼성SDI 4.05%)를 1조 원에 사들인다. 이로써 양사의 '빅딜(사업 맞교환)'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한화종합화학의 대주주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 지분 인수를 결의했다.

한화는 2015년 삼성으로부터 방산·화학 계열 4개사를 약 2조 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당시 삼성종합화학(현재 한화종합화학)에 남아있던 삼성 측 지분을 이번에 한화가 모두 인수하는 것이다.

지분 인수 금액 1조 원은 한화와 삼성의

협상으로 합의됐다. 2015년 빅딜 이후 6년이 지났는데, 그사이 변한 한화종합화학·한화토탈의 실적과 미래 사업에 대한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했다.

인수 대금은 한화종합화학의 대주주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이 세 차례에 걸쳐 나눠 낸다. 두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올해 1차 대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 지급할 2~3차 대금은 앞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나누어 낸다.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등 친환경 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한화종합화학은 빅딜 완성을 계기로 신사업 투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는 석유화학 사업 노하우를 살려 빅딜 이후 6년 동안 규모와 내실 면에서 모두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수소 혼소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 PSM과 네덜란드 기업 ATH를 인수하는 등 수소 중심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수소 혼소는 기존 가스터빈을 개조해 천연

가스에 수소를 섞어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 기반 자산을 활용하면서 수소 비중을 늘려가는 수소 시대의 징검다리 기술로 평가된다.

기존 석유화학 사업의 친환경화도 본격화한다. 한화토탈 대산 공장의 부생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모빌리티 사업, 화석 원료를 바이오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을 넘어 페플라스틱을 원료로 분해해 자원을 순환 사용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는 한화종합화학의 성장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장 재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화 측은 "이번 지분 인수로 한화·삼성 빅딜 시즌1이 마무리됐다"라면서 "시즌2는 미래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석유화학 회사에서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국내 판매량 1만대 돌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출시한 '비스포크 정수기'가 국내 출시 3개월 만에 판매량 1만 대를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는 강력한 정수 성능은 물론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디자인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즐길 수 있도록 강력하고 촘촘하게 이물질을 걸러내는 '4단계 필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스포크 정수기는 물론 정수 기능이 도입된 비스포크 냉장고에도 적용했다.

특히 이 제품은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냉수나 냉·온수 모듈을 선택해 개별적으로 추가 가능한 새로운 콘셉트의 정수기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 2021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당신의 **봄**

**보**

삼성화재 좋은보험사전

# 보험

(명) [보:힘]

아프면 찾는 것. 이제는  
아프지 말라고 찾는 것

나 "보험"으로  
건강관리 하잖아~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애니핏**

**삼성화재 애니핏으로  
오늘부터 건강관리 시작하세요!**

걸음수만큼 포인트 적립, 적립한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는 물론  
병원 예약, 건강검진 예약, 질병 정보 검색과 마음챙김까지!

- \* 이용 대상 : 삼성화재 건강보험 가입 피보험자(만 15세 이상, 본인명의 스마트폰 소지자)
- \* 걷기 목표 달성시 매일 최대 100포인트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 “6G에 2200억 투입, 핵심기술 확보·국제표준 선점”

## 과기부, 6G 전략회의 개최

민관 손잡고 생태계 조성 계획  
5G콘텐츠 부재 반면교사 삼아  
사업 초부터 서비스 개발 병행  
미국과 공동연구 본격 추진도

정부가 초성능, 초공간, 초정밀 등으로 대표되는 6세대(6G) 핵심기술 표준 선점을 위해 2025년까지 22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술적 선도국가인 미국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국제표준화기구 의장직 진출로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전문 인력양성도 본격화한다. 아울러 5G 상용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킬러 콘텐츠 부재 등 활용 방안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6G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단계부터 융합된 서비스 개발도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다가올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6G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6G R&D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생태계 조성 이 중요 화두로 언급됐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혜숙(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차세대 이동통신 6G 전략회의’에서 로버트 램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목은 R&D이지만 5G 때랑 다르게 서비스 개발을 같이하는 게 다른 점”이라며 “전략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6G) 생태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사업 초반부터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구축하자 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개발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6G 상용화 시기는 2028~2030년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미국은 DARPA(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 주도 장기 R&D에 착수한 이후 최근 주요 우방국과 6G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6G 전담 기구를 출범하고 일본도 2020년 민관 합동 ‘Beyond 5G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간 공동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6G 분야 공동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또 6G 기술 선진국인 중국과도 공조체계를 마련한다. 홍 국장은 “중국은 5G 때도 그렇고 6G 역시 기초기술 개발을 많이 하는 나라로, 중국과 기초기술 쪽으로 연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과제 자체는 구체화가 안 됐고 국가 간 얘기한 사안도 없다. 또 미국의 우려 역시 있지 않다”고 말했다.

6G R&D 실행계획에는 세계 최고 6G

기술 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 확보 △국제표준·특허 선점 △연구·산업 기반조성 등 3대 전략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이 담겼다.

민간 투자가 어려운 저궤도 통신위성, 초정밀 네트워크 기술 등 6대 중점 분야 10대 전략 기술에 2025년까지 총 2000억 원, 올해 기준 총 179억 원(12개 과제)을 투자한다. 비행체와 해상·재난지역 등에서도 Gbps급 통신 이용이 가능하도록 위성망·지상망의 통합한다. 2031년까지 14기의 검증용·실증용 저궤도 위성도 발사해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올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틀을 닦고 핵심 장비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6G 선제 연구 중인 미국(NSF), 중국(CAICT), 핀란드(오울루대) 등과 핵심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및 6G 주파수의 국제협력력을 추진한다.

KAIST, 성균관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내 6G 연구센터를 지정하며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유도한다. 내년에는 조정밀, 초지능, 초신뢰 분야에서 대학 연구센터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홍 국장은 “5G의 경우 콘텐츠 부재 등 여러 지적이 나왔다. 6G에서는 어떤 거를 서비스 할지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 리서치센터 등과 같이 미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반월·시화, 인재·신산업 모이는 혁신공간 도약”

## 인터뷰 최 종 태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반월 시화 국가 산업단지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2년여 동안 국내 제조기업 생태는 시계제로 상태이지만 한편에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23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10년을 맞은 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집적지 및 뿌리산업의 메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으나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주력기업 이전, 영세업체 증가, 근로 환경 낙후, 주차난 등이 대표적이다.

산단공과 정부는 이러한 노후 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11월 4일 반월 시화산단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집적시설 확충, 근로 환경 개선 등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실제 산단환경 개선사업, 민간대행사업 등 총 18건, 1조 319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올해 내 고시에정인 사업도 6건으로 총 1조 425억 원에 이른다.

최 본부장은 “산업 환경 변화, 주력기업 이전,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생산·수출 성장세가 둔화했다”며 “공단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산단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집적시설 확충과 기업지원 및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단공 경기 본부는 최근 10년간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반월시화산단 내 산업집적시설, 기업지원시설, 물류센터 및 연구시설 등을 확충했다.

최종 목표는 첨단산업으로의 업종 고도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의 최종 목표는 첨단산업으로의 업종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라고 말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 고도화 사업 10년 경쟁력 제고 뿌리산업 넘어 첨단산업 육성 문화센터·주거시설 확충 집중 기업은행 펀드 조성 저리 융자

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최 본부장은 “문화센터, 기숙사, 산재예방시설,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확충을 통해 고용·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복지·문화시설로 시우역 인근 전시판매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센터가 올해 3월 개관했고 현재는 안산시 등과 공동으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편리한 출퇴근 지원을 위해 안산, 시흥 내 주요 지하철 역사와 반월시화 산단을 연결하는 공동 통근버스(10개 노선, 12대)가 운행 중”이라며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만 15~34세)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단공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제조기업의 생존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도 추진

하고 있다. 먼저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IBK 동반성장협력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2.6%p까지 금리 감면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 해결을 위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해 4월 13일 기준 1년 연장했다.

이날 인터뷰에선 산단공이 정부·민간과 합동으로 그리는 반월·시화 산업 단지의 발전 방향도 엿볼 수 있었다.

최 본부장은 “구조고도화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은 정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요 계획은 수요자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후 산업단지를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이라며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도 구조고도화사업 이후를 위한 민관정의 밑그림이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그린산단은 디지털·그린뉴딜을 융합해 기존 산업단지를 첨단 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거듭나는 프로젝트다. 고종민 기자 kjm@

# 넷마블, 코웨이와 ‘뷰티 플랫폼’ 진출

## 방준혁 의장 사내이사 합류... IT기술에 구독사업 결합 주목

넷마블이 비게임 사업 분야로 뷰티 플랫폼을 선택했다. 2019년 인수한 코웨이와의 시너지 첫 사례로 구독경제의 첫발을 내디딘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넷마블은 최근 ‘넷마블힐러비’ 법인을 신규로 신설했다. 신규법인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음식료품, 생활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기재했다.

넷마블힐러비는 백영훈 넷마블 부사장이 이끌며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은 사내이사로 합류한다.

넷마블이 2019년 코웨이를 인수한 뒤 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3월 넷마블 신사옥이 완공되면서 코웨이까지 건물로 이주해 한 지붕 아래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협업에 대해서도 발 빠른 의사전달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지난 3월 본사에서 개최한 제1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

업 다각화를 위해 인수한 코웨이와의 IT 협업을 지속하고 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상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넷마블힐러비는 넷마블이 선보이는 첫 구독경제 상품이 될 전망이다.

코웨이는 현재 다양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ED 셀 마스크를 출시하며 홈 뷰티 시장에도 진출했다.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력에 코웨이 화장품·뷰티 구독사업 노하우를 결합해 서비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시점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넷마블 관계자는 “신규법인은 개인맞춤형 뷰티·건강 솔루션을 IT플랫폼화 하는 방향성을 가진 기업”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교육부-소진공, 직업계고 학생 취업 연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교육부와 손잡고 직업계고 학생의 소상공인 업체 취업 연계에 나선다.

소진공은 교육부와 23일 서울시 드림스퀘어에서 ‘서비스 분야 직업계고 고졸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소진공과 교육부는 외식조리, 제과제빵, 미용 등 서비스 분야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가게 등 우수 소상공인업체에 직업계고 학생들을 연결한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장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진공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졸 청년이 선호하는 우수 소상공인 업체 일자리 연결, 고졸 청년 인재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소상공인 업체 대내외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상호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 치킨·떡볶이 앞세운 K편의점, 동남아로 진격

**이마트24, 말레이시아 진출 4개 점포 운영 CU와 맞대결 GS25 베트남서 110곳 운영 한국 음식 PB상품으로 승부**

편의점의 동남아시아 진출 바람이 거세다. 치킨과 라면, 떡볶이 등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가 치솟으면서 편의점업체가 '기회의 땅'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외국인들 사이에 한국 드라마·영화 등이 인기를 끌자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는 편의점의 니즈와 맞물린 선택이다. 동남아는 K드라마와 K팝을 필두로 한류 문화가 형성돼 사업 진출이 용이한 데다 동남아 인구수 6억5000만 명 중 30세 이하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큰 블루오션으로 평가된다.

◇이마트24, 첫 해외 매장 말레이 낙점=이마트24는 24일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인 유나이티드 프론티어홀딩스(United Frontiers Holdings)와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마트24 말레이시아 1호점

을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나이티드 프론티어는 '이마트24 말레이시아'를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이마트24는 브랜드 사용권과 시스템 전수 등 노하우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마트24 말레이시아'는 올해 말까지 10개점, 5년 내 300개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마트24는 이번 말레이시아 진출을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을 검토해 사업성이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해외로 진출,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로 입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이달수 이마트24 상무는 "이마트24가 해외 진출의 시작을 알리는 말레이시아 1호점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마트24로 리브랜딩 한 후 단 4년만에 이룬 성과로서, 향후 다양한 국가로 진출해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로 거듭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는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중인 CU와 맞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BGF리테일은 작년 10월 말레이시아 기업 마이뉴스홀딩스(Mynews Holdings)의 자회사인 MYCU 리테일과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올 4월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했

## 국내 편의점 해외 진출 내역

<b>베트남</b>	2018년: GS25 진출, 현재 110개점 운영
<b>말레이시아</b>	2021년 4월: CU 진출, 현재 4개점 운영 2021년 6월: 이마트24 진출
<b>몽골</b>	2019년: CU 진출, 현재 110개점 운영 2021년 5월: GS25 진출, 현재 6개점 운영



다. 현재 운영 점포는 4곳이다.

마이뉴스홀딩스는 1996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로컬 편의점 브랜드 '마이뉴스닷컴'을 운영중이며, 약 530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편의점 업계 2위 업체다. CU는 신규점 개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마이뉴스닷컴 점포들도 CU로 순차적으로 전환해 1년 내 신규점 50개, 향후 5년 간 500개 이상의 점포로 편의점 업계 1위를 노린다는 목표다.

CU는 2019년 몽골에 진출해 현재 110여 점포를 운영하며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베트남에 진출한 GS25도 호치민에 이어 빈즈, 붕파우 지역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해 지난달 기준 110개를 출점했다. GS25는 지난달에 몽골에도 입성해 CU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게 됐다. 2025년까지 500호점 출점이 목표다.

◇'K푸드'로 현지인 '입맛' 공략=이마트24는 말레이시아 시장 안착의 무기로 K푸드의 현지화를 내세운다. 이마트24 말레이시아 1호점은 매장 면적 257㎡(약 78평)의 복층 구조로 동시에 40명이 식사가 가능하도록 10~15개 테이블을 비치했다. 아울러 한국식 컵밥 4종(불고기·치킨·참치·마요·연어)을 비롯해 떡볶이, 닭강정, 어묵튀김 등 K푸드를 강화했다.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는 고객을 위해 한국에서 로스팅한 이마트24 이프레소원두를 그대로 사용한 원두커피를 비롯해 핫초코, 민트차 등 20여종에 달하는 음료를 판매해 커피 전문점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현지에서 인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한국의 눈꽃 빙수 장비를 활용한 눈꽃빙수 4종과 함께 소프트아이스크림 3종 등 즉석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도 판매한다.

아울러 이마트24의 김밥과 삼각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한국식 RTE(Ready To Eat) 푸드도 판매하고 PL(자체브랜드) 상품인 '아임이', '민생'을 비롯해 대한민국 상품을 전체의 30%로 구성했다.

CU 역시 한국화로 말레이시아를 공략 중이다. 1호점인 'CU센터포인트점'은 쿠알라룸푸르 중산층 거주 지역 쇼핑몰 내 50평 규모의 대형 점포로 한국 상품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CU의 인기 PB(자체상표) 상품 외에도 한국의 유명 상품과 중소기업 우수 제품들로 가득 채웠다. 오뎅과 떡볶이, 닭강정, 빙수 등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들도 즉석조리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특히 인기가 많은 떡볶이는 오픈 첫 열흘 간 무려 2500컵이 팔렸다.

편의점들은 자체 PB 상품 수출로도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수출액 44억 원을 넘겼고 올해 수출 목표는 100억 원으로 잡았다. 품목 수도 2017년 40종에서 작년 450여 종으로 크게 확대됐다. CU는 몽골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약 30%가 한국 상품이며 최근에는 해외 수출용 PB 상품인 'GET 카페인라떼' 2만 개를 선보였다.

남주현 기자 jooh@

## TGIF, '매드포갈릭' 운영사에 매각

패밀리레스토랑 TGIF(티자이아프라이데이)가 결국 팔렸다.

롯데GRS는 엠에프지코리아(MFGKOREA)에 패밀리레스토랑 TGIF의 국내 사업권을 매각한다고 23일 밝혔다.

롯데GRS는 7월 30일부터 국내 TGIF 15개 점포와 관련된 사업 일체를 엠에프지코리아에 양도하기로 했다. 계약 관련 세부사항은 양사 협의로 외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엠에프지코리아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펠마케팅은 외식매장인 '매드포갈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TGIF 인수를 통해 브랜드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TGIF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마르쉐 등과 더불어 국내 1세대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 패밀리레스토랑이 한창 성장기일 때 공격적인

출점을 이어가며 한 때 매장수가 60개에 육박했으나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패밀리레스토랑의 인기가 사그라들자 매장수는 물론 매출도 급감했다.

롯데GRS는 부진한 매장을 철수하며 TGIF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넓은 영업장 면적이 필수인데다 매장 오픈 비용이 높아 가맹사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TGIF 역시 직영체제로 운영해왔다.

롯데GRS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력 사업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기존에 운영하는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TGIF의 매각으로 2010년대 패밀리레스토랑 빅3로 불리는 아웃백스테이크, 빕스, 베니건스 중 빕스만이 유일하게 매각을 면한 상황이다.

남주현 기자 jooh@



## "들기름막국수 레시피 알려드려요"

현대홈쇼핑은 24일 오후 5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2030세대를 겨냥한 TV홈쇼핑 프로그램 '영스타그램'에서 오투기의 '고기리 들기름막국수'를 TV홈쇼핑 최초로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고기리 들기름막국수'는 경기도 용인의 맛집 '고기리막국수'의 대표 상품이다. 이날 방송에는 용인 고기리막국수의 유수창·김윤정 대표가 직접 출연해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할 예정이다. 상품은 1팩당 1인분씩 총 14팩으로 구성돼 있으며 판매 가격은 3만9900원이다.

사진재용 현대홈쇼핑

##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정부 지원·기업 혁신 필요"

"유통 산업은 한마디로 '디지털화'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온라인에는 '안전함'이 더해졌고 오프라인은 경험과 체험의 장으로 실제감을 높인다. '유통 4.0'의 시대다." (정연승 한국유통학회장)

"유통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유통산업협회는 앞으로도 국가 경제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도 행정적 노력을 부탁한다." (이재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정부에서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유통물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중소 유통의 배송과 물류 혁신을 위한 공동 물류센터 디지털화와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9회 유통혁신주간' 행사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해 25일까지 진행된다. 23일 행사 시작에 맞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학계와 업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유통업계 전망과 이에 따른 전략과 목표 등을 나눴다.

25일까지 진행되는 제 9회 유통혁신주간 행사에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 1회 디지털 유통대전을 포함 유통산업의 미래비전과 혁신방향을 논의하는 △디지털 유통 혁신 컨퍼런스 △신기술 전시회 △E-커머스 피칭페스타 △국내·외 바이어 대상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열린다.

제 1회 디지털 유통대전에는 60개사 200여 개 부스가 전시회 및 특별 체험관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특히, 쿠팡, SSG닷컴 기업들의 신기술 전시와 함께 스마트데일리 라이프 특별 체험관에서는 생활, 업무, 배송, 판매시설을 주제로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디지털 유통혁신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유통환경 변화에 맞는 유통산업의 미래비전과 혁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유통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빅뱅시대, 유통산업의 미래', 데이터와 함께하는 유통물류 포럼 등이 함께 진행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이케아, 한판 붙자" 롯데百貨 리빙전문 '메종 동부산'

**면적 1만3520㎡ 3층 규모 한샘·일룸... 테마별 쇼룸 구현 500m거리 이케아와 경쟁구도**

롯데백화점이 '이케아 동부산점' 인근에 초대형 리빙 전문관 '메종 동부산'으로 맞붙을 예정이다. '메종 동부산'은 롯데쇼핑이 선보이는 첫 리빙전문관이다.

롯데백화점은 24일 동부산 관광단지에서 초대형 리빙전문관인 '메종 동부산'을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리빙 상품으로만 구성된 단독 건물로 영업면적은 1만 3520㎡(4090평)이다. 1, 2층은 리빙 매장, 3층(옥상)은 펫파크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가구와 소파, 가전 등 총 38개 국내외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를 한 자리에 모아 평형별, 테마별 쇼룸을 다양하게 구현해 실제 생활 공간 같은 느낌

의 쇼핑 체험이 가능하다. 대표 브랜드는 한샘, 리바트, 일룸 등이 있으며, 특히 한샘 디자인 파크는 2960㎡(896평)의 토탈 홈 인테리어 매장으로 가구부터 생활용품 등 10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이고 상담, 시공, A/S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몬스와 에이스, 템퍼, 삼성전자, LG전자 등 리빙 대표 브랜드들을 모두 만날 수 있으며, 수입 가구 편집숍 '원더라운'에서는 무토티를 비롯해, 스트링, 웨델보 등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를 선보인다.

'메종 동부산'은 롯데가 잠실에 이어 9월 두번째로 선보이는 놀이공원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칭)에 위치한다. 인근에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과 롯데시네마의 '자동차 극장' 및 힐튼호텔부산과 반얀트리 부산(2023년 오픈



예정), 해동용궁사,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가 있어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메종동부산 오픈으로 이케아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메종동부산은 지난해 2월 문을 연 이케아 동부산과 직선 거리가 500m에 불과하다. 이케아 동부산점은 이케아가 광명점, 고양점, 기흥점에 이어 국내 4번째로 오픈한 점포이자 지방 권역의 유일 매장이다. 지상 4층과 지하 1층

건물로 전체 영업장의 면적은 4만2316㎡로 메종동부산에 비해 3배 가량 크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리빙 수요가 치솟고 있는데 영남권에는 관련 전문 매장이 적다"라면서 "경쟁사보다 프리미엄급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과 연계해 지역 대표 전문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들어 리빙 상품군 수요는 크게 치솟고 있다. 롯데백화점 리빙 상품군은 지난해 전년 대비 16% 신장했고, 올들어서도(1~5월) 전년 대비 40%로 상승했다. 롯데는 '메종' 브랜드를 활용해 계속 관련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4월에는 백화점 본점에 홈스타일링 큐레이션숍 '메종 아카이브(MAISON ARCHIVE)'를 오픈했고, 5월에는 인천터미널점에 편집숍 '탑스 메종'을 선보였다.

남주현 기자 jooh@

# “모 아니면 도, 투자 올인” ‘밈 주식’에 빠진 서학개미

7일간 ‘AMC’ 2억6225만 달러 순매수 ‘클로버헬스’에도 몰려  
문지마 투자에 이유없이 급등락 변동성 커 ‘한탕주의’ 경계를

“밈 주식’ (meme stock)이 위험한 건 알죠. 이렇게라도 시드(종자돈)머니 규모를 키워놓지 않으면 ‘벼락 거지’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사회 초년생인 직장인 김학재(26·가명)씨의 푸념 섞인 말이다. 그는 미국 사자에 맞춰 현지에서 유행하는 소형 주식을 하루 단위로 샀다 팔았다 하는 이른바 ‘단타족’이다.

김씨는 저축은행 통장에서 700만 원을 찾아 미국 급등락 주식을 샀다.

“SK하이닉스 주식을 팔아서 AMC엔터테인먼트(AMC) 주식을 샀는데 110% 넘는 수익을 건넸다”면서 “미국 현지 로빈후드를 따라 매매하는 게 오히려 재테크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주식에 투자하는 20·30대 초반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밈 주식’(meme stock)에 쫓겼다. 밈 주식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주식으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월스트리트벳츠(WallStreetBets)’ 게시판에서 인기를 끄는 종목을 뜻한다.

한때 한국 증시에서는 ‘국민 주식’ 삼성전자,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 적립식 장기 투자가 유행처럼 떠올랐는데 5, 6월 전후해 분위기가 변하는 모양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밀려 대형 기술주가 고전하는 사이 젊은 세대들의 인내심이 그만큼 약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6월 16~22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기업은 AMC엔터테인먼트 홀딩스(AMC)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2억6225만 달러(한화 2976억 원)를 사들였다.

영화체인업체인 AMC는 이른바 밈 주식의 대표격이다. 밈 주식이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개설된 주식 토론방

해외주식 매수 상위종목 (단위: 달러, 기간: 6월 16~22일)

순위	종목명	매수결제
1	AMC 엔터테인먼트 (AMC ENTERTAINMENT HOLDINGS INC)	262,248,635
2	테슬라 모터스 (TESLA MOTORS)	121,127,112
3	애플 컴퓨터 (APPLE COMPUTER INC.)	70,005,998
4	로블록스 (ROBLOX CORPORATION)	62,586,931
5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55,870,239
6	아마존닷컴 (AMAZON COM INC)	45,865,133
7	게임스탑 (GAMESTOP CORP)	44,353,139
8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QQQ (ProShares UltraPro QQQ)	41,506,012
9	엔비디아 (NVIDIA CORP)	36,628,942
10	노바백스 (NOVAVAX INC COM USD0.01) (POST REV SPLIT)	36,303,945

월스트리트벳츠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는 종목을 의미한다. 월스트리트벳츠는 올해 초 개인투자자들이 헤지펀드의 공매도 포지션에 반발해 공매도 타깃 종목의 매수 논의가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AMC 역시 해당 커뮤니티에 거론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5월 초 12달러대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개인투자자 매수세가 몰리며 이달 23일(현지시간) 기준 58.27달러로 장을 마친 상태다. 지난 2일에는 하루만에 95% 폭등하며 62달러까

지 오르기도 했다.

서학개미는 AMC에 이어 클로버헬스케어(2013만 달러)도 대거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밈 주식으로 분류된 베드베스&비온드, 웬디스 등도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의 등락률을 보이고 있다. 밈 주식은 사는 이유도, 주가가 급등락하는 이유도 불분명한 게 특징이다.

밈 주식의 연장선에서 변동성이 큰 스팩, 동전주 등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 매수 상위 종목에는 개인과 기간 사이 공매도 전쟁을

일으킨 게임스탑(4435만 달러), 루시드모터스 관련 스팩인 처칠 캐피털 스팩(2814만 달러), 사기 논란에 휩싸인 중국 드론업체 이항홀딩스(1634만 달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년 닷컴 버블 때 성장성이 없는 인터넷 관련주에 자금이 대거 몰리는 성향과 유사하다”며 “밈 열풍 등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수급이 몰리는 자산에 투자하는 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금리인상 이슈가 큰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증시에서도 변동성이 커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미국 증시에선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하루 30%)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주가가 50% 넘게 급등락할 수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포모’(Fear Of Missing Out) 심리로 특정 이벤트가 있는 종목에 ‘올인’하는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ljh@

## ‘BBB 채권’ 공모주 덕에 날았다

‘공모주 5% 우선 배정’ 혜택에  
하이일드펀드 7617억 원 유입

#4년여 만에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 한라(신용등급 BBB)가 대박을 터트렸다. 한라가 14일 진행한 2년물 300억 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금액의 5배인 1500억 원의 매수주문이 몰렸다. 당초 희망금리로 제시한 개별민평금리(연 4.45% 가량) 대비 1.5%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 증액을 해도 개별민평금리보다 1.45%포인트 낮은 약 3%가량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등급 ‘BBB’인 두산 회사채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에서 400억 원 모집에 2070억 원의 자금이 들어와 5.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주 투자에 시장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 하이일드 펀드로 8000억 원에 달하는 문치돈이 몰렸다. 하이일드 펀드에 적용되는 공모주 5% 우선 배정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다.

하이일드펀드 운용사들은 공격적으로 저신용 기업 회사채를 끌어담고 있다.

크라프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어급 공모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는 평가다.

공모주 시장 호황에 힘입어 한동안 침체됐던 저신용 회사채 투자심리가 빠르게 살아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오는 2023년까지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자산의 45% 이상을 BBB+ 이하 회사채 또는 코넥스 주식으로 구성할 경우, 공모주 물량의 5%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하이일드 펀드 설정액(공모, 사모 합산)은 1조38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7617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실탄을 확보한 하이일드펀드 운용사들은 BBB급 하이일드(High-Yield·비우량채권)를 끌어 담고 있다.

두산은 넘치는 수요를 감안해 발행액을 두 배(800억 원)나 늘렸는데도 발행금리는 연 3.6%에 불과했다. 작년 9월과 11월 2년물 회사채를 각각 연 5.4%, 5.3%에 발행한 데 비하면 몸값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올 들어 회사채를 발행한 두산인프라코어(BBB0), 한진칼(BBB0), 한신공업

(BBB+) 등도 3%대의비용(조달금리)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한진칼은 4월 표면이자율 연 3.2%에 사모채 1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지난 3월 말 한진칼이 사모채 2년 6개월물 130억 원어치를 발행한 지 보름만의 추가 발행이었다.

한진칼은 3월 5일 공모 방식으로 회사채 1440억 원어치를 찍은 바 있다. 수요예측에서 2년물 모집액 1000억 원에 1520억 원의 기관자금 확보했다.

교보와사자산운용, 한국채권투자자문, KTB자산운용 등 주요 하이일드펀드 운용사들이 물량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허영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카카오펀드, LG에너지솔루션에도 조 단위 주자들이 채비 중이다”면서 “공모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하이일드펀드의 ‘BBB+’ 이하 채권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모주 열풍이 식었을 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이일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사라지면 펀드 환매에 따른 비우량 회사채 매도가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해림 기자 wiseforest@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촉구하는 ‘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에 참여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고고챌린지’ 동참

SNS로 환경보호 릴레이 캠페인

한국거래소는 손병두 이사장이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 ‘고고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고고챌린지’는 SNS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 절감과 친환경 제품 사용 실천을 다짐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환경부가 올 1월에 시작했다.

손 이사장은 SNS(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플라스틱 사용 줄이Go! ESG 투자문화 확산하Go! 배출권시장 활성화하Go!’ 메시지와 함께 한국거래소도 일상에서 플라스

틱 줄이기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손 이사장은 문성유 자산관리공사 사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추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가이던스’ 제정, ESG 관련지수 산출·발표,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 등을 통해 시장에서도 ESG 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시장참가자 확대 등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부응에도 앞장서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무디스, NH투자 신용등급 A3로 상향

NH투자증권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실시한 등급 평가에서 장기기업신용등급(Issuer Rating) ‘A3’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등급은 ‘Baa1’이었다. 시장에선 이번 상향 조정을 계기로 향후 조달금리 책정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상향 조정에는 농협은행의 독자 신용도 개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무디스는 “NH투자증권이 농협금융지주 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농협금융그룹 계열사와의 공동 투자 등을 통한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이 농협중앙회에 지

급하는 이익 배당금으로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한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NH투자증권의 적정 유동성 관리 및 원활한 자금 조달 능력, 충분한 이익 창출과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 변동성 등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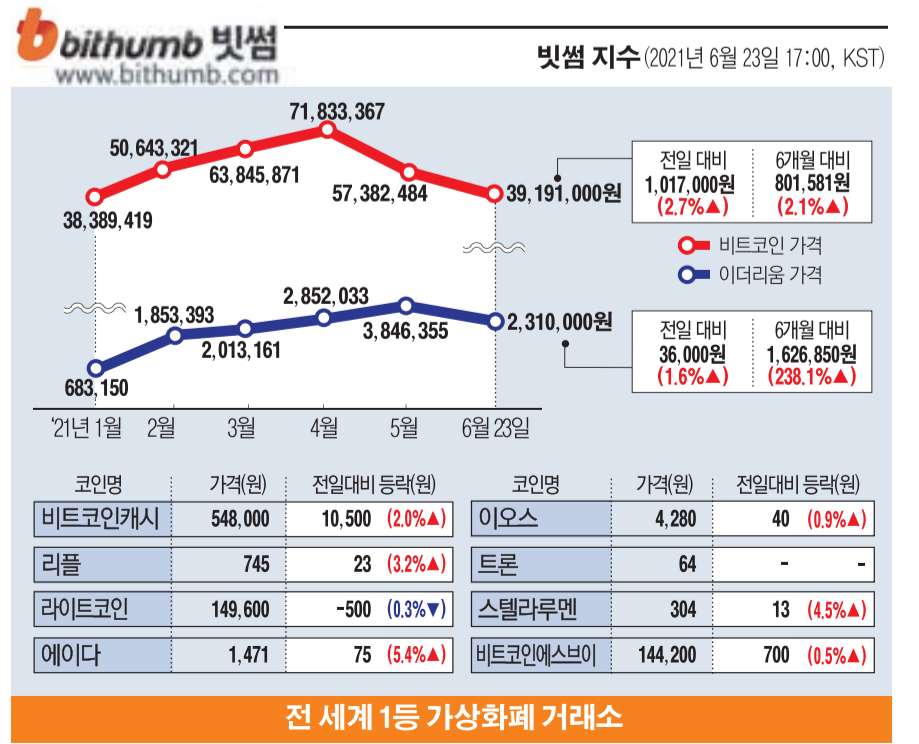
NH투자증권은 기존에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신용평가에서 국내 증권사 중 최고 수준인 신용등급 ‘AA+ (안정적)’을 받은 바가 있다.

임계현 NH투자증권 경영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투자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림 기자 wiseforest@

##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나뉜다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다.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영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업무집행사원(GP)이 돈을 굴린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 해외송금, 요모조모 따져봐도 결론은 신한 WISE!

신한은행이 영국 WISE사와 해외송금을 시작합니다  
더 낮은 수수료로,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해외송금도 신한이 고객에게 마음을 더 기울입니다



**송금은 더 빠르다**  
최소 1시간~24시간 이내 송금

**수수료는 더 낮다**  
최저 \$2.13 수수료 적용

**모바일로 더 간편하다**  
세계 27개 국가 송금 가능



[신한 WISE 해외송금]

※ 송금신청 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므로 송금내역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hinhan.com](http://www.shinhan.com) 또는 고객센터 1577-8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1-11136-01호 (2021.06.15-2022.06.15)

# 9월 모의평가 응시 재수생 화이자 접종

### 내달 8일까지 원서 접수 사전예약 거쳐 8월 접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이도를 마지막으로 가능해볼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9월 1일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재수생, n수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8월에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평가원은 23일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 체제에 따라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 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뀐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이어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들은 달라진 시험 유형에 적응해야 한다. 성적 통지표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며 9월 30일 배부된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자 중 고3이 아닌 수험생을 대상으로 원서를 접수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 여부도 파악한다.

접종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라

사전 예약을 거쳐 8월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배정한 상태다. 고3은 별도로 교육청을 통해 명단을 파악해 7월 셋째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일각에는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9월 모의평가에 허수 지원자는 응시자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평가원은 "백신 우선 접종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시험을 위해 시험에 실제 응시할 수험생만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수능을 응시하는 이들도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수능 응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전문가들은 9월 모의평가는 중간 단계라는 인식이 중요한 만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9월 모평 직후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하므로 지원 가능군을 미리 설정하되 확정적인 대학 선정이 아니라 범위를 정해 두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현경 기자 son89@



檢 중간간부 인사는?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인사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연복 변호사, 최현희 변호사, 원해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 서울시, 영등포지하상가 해지지급금 소송 1심 승소

### 491억 규모... "사업 특정 구간 제외 수익성 악화' 증거 없어"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선순위 대주단이 제기한 491억 원 규모의 해지지급금 청구 소송 1라운드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23일 서울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하나은행, 롯데손해보험, 광주은행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는 2004년 지방재정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영등포시장 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시행 계획 수립 후 사업자를 공모하고 그해 7월 설립됐다. 지하상가 운영사인 (주)영등포뉴

타운지하상가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2012년 하나은행과 롯데손보, 광주은행으로부터 각각 160억 원, 100억 원, 3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주)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는 2011년부터 9년째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만큼 수익성이 악화했다. 2단계로 나뉜 사업에서 1단계(영등포시장로터리~영등포시장 사거리~영등포시장역)가 추진되지 못하면서 공실이 발생한 탓이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주단은 수익성 악화 원인을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돌렸다. 대주단은 2019년 실시협약이 정한 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지급금 약 49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과 롯데손보, 광주은행은 대출원금과 이자 등을 합산해 각각 약 271억 원, 약 169억 원, 약 50억 원을 책정했다.

이들은 해지지급금 요구 근거로 실시협약 제46조의 '정부 정책 및 제도,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2단계 구간이 제외됐고 그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실시협약이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檢, 조국 소환조사

### 김학의 불법 출금 참고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금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6월 수사팀의 출금금지 의혹 수사를

를 무마한 정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금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운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달 단행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지휘 부서를 반부패강력부에서 형사부로 변경했다. 김중용 기자 deep@

# 검찰 "전두환 미납추징금 16.5억 환수 예정"

### 추징금 56%, 1235억 환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70억 원 중 16억5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

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씨의 추징금은 1235억 원(환수율 56%)이다.

검찰은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에서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2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 씨의 연회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리 및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씨 측의 이의 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연회동 사저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을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김중용 기자 deep@

재미

공감

품격

##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챔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챔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챔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광고 문의 (02) 799-6727**

# 홍제동·부천 중동역 등 6곳 고밀개발 1만여 가구 공급

## ‘도심 공공주택’ 5차 후보지 발표

역세권 3·준공업 1·저층주거지 2곳 민간 재개발보다 수익률 21%P↑ 증산4·수색14 등 4곳 주민 동의 3분의 2 넘겨 본지구 요건 충족

지역	위치	면적 (㎡)	주택 공급 규모(가구)	사업유형
경기 부천시	1 소사역 북측	4만1378	1282	역세권
	2 중동역 동측	5만1263	1680	
	3 중동역 서측	5만3901	1766	준공업
	4 송내역 남측	5만5590	2173	
	5 원미사거리 북측	5만8767	1330	
서울 서대문구	6 고은산 서측	11만4770	2975	저층주거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지와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 등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선 평균 380% 용적률이 적용되는 고밀 개발을 통해 1만12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4차 후보지 46곳을 포함해 총 52곳으로 늘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하는 신규 주택은 총 7만1200가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5차 후보지 6곳 중 경기 부천시 3곳은 역세권이며, 부천시 1곳은 준공업지, 서울 서대문구 1곳과 부천시 1곳은 저층주거지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 부천 소사역 북측 4만1378㎡ 부지에 1282가구, 중동역 동측 5만1263㎡ 부지에 1680가구, 중동역 서측 5만3901㎡ 부지에 1766가구가 들어선

다. 준공업지는 부천 송내역 남측 5만5590㎡ 부지로 2173가구가 공급된다. 저층주거지인 서울 서대문 홍제동 고은산 서측 11만4770㎡ 부지에는 2975가구,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5만8767㎡ 부지엔 1330가구가 지어진다.

특히 홍제동 저층주거지는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단지 조성하고 함께 지역개발형 문화·체육·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공급으로 서대문구 신주거지역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중동역 역세권도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풀린 곳으로,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더뎠다. 정부는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 개발과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6곳의 후보지에 대한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재개발보다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수도 민간 재

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평균 873가구에서 1448가구로 늘어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진행하면 1868가구로 1.3배 증가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지주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0%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은 주민 동의 10%를 넘겼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은 추가로 주민 동의 3분의 2를 넘겼다. 이로써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을 비롯해 후보지 총 4곳이 주민 동의 3분의 2를 넘겨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 9월 시행되면 주민이 사업에 적극적인 구역은 즉시 예정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된 후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2023년 착공할 방침이다.

이재명 기자 lly0403@

## 부동산 정보업체의 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	중개 대상	주요 내용
<b>직방</b> 온택트파트너스	아파트	- 공인중개사와 파트너십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서비스 활용
<b>다방</b> 다방싸인	원룸 및 투룸	- 자체 개발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 ‘디지털 복덕방’ 문 열리지만...

### 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다방 ‘다방싸인’ 잇따라 출시 중개사協 “생존권 위협” 거센 반발... ‘法통과’ 과제도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내놨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는 기업은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해 중개사 편의를 높여준다는 입장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공인중개사들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면서 시스템 도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과 다방은 최근 부동산 온라인 중개 시스템 도입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매물을 확인한 뒤 회사와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와 비대면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내놓은 시스템은 간접 중개 방식에 가깝다. 직방이 출시할 온라인 부동산 매매 서비스 ‘온택트 파트너스’는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은 중개사가 해당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다방은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 ‘다방싸인’ 출시를 예고했다.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에 매물을 공유하면 제휴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확인한 뒤 다방 앱에 광고한다. 고객이 해당 매물 계약을 원하면 앱 안에서 본인의

증을 거쳐 최종 전자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성명서에서 “대형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중개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접 중개에 뛰어드는 것은 영세한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는 진화에 나섰다. 직방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현업 공인중개사와 매수자,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일 뿐”이라며 “부동산 중개를 위한 디지털 도구로 봐 달라”고 말했다. 다방 관계자 역시 “전자계약을 통해 정보 공유 활성화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시스템 출시 이후 중개업계를 설득하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부동산 전자계약 정착을 위한 법적 변수도 해결해야 한다.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 시스템 외에 다른 어떤 시스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각 업체가 개발한 전자계약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줍줍 열기’마저 식은 대구 아파트 시장

### 해모로 하이엔·이시아팰리스 무순위 청약서도 ‘홍행 참패’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대구 분양시장이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된 데다 공급 과잉으로 분양시장 전체가 가라앉은 탓이다.

이번 주 대구에선 단지 두 곳이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수성구 파동 ‘수성 해모로 하이엔’에서 85가구, 동구 북무동 ‘이시아 팰리스’에서 22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청약가점에 상관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청약 접수를 마친 결과 새 당첨자를 맞은 집은 수성 해모로 하이엔에서 62가구, 이시아 팰리스에서 9가구뿐이었다. 나머지 집은 무순위 청약을 받고도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택형으로 봐도 두 아

파트에서 청약을 받은 6개 주택형 중 4개에서 청약 미달(청약 신청자가 공급량에 못 미치는 것)이 발생했다.

올해 초만 해도 지금과 분위기가 달랐다. 대구 중구 서성로1가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올 2월 26가구를 무순위 청약으로 분양했는데 8716명이 몰리면서 무순위 경쟁률이 335.2대 1까지 올랐다. 가점에 상관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분청약보다도 경쟁률이 높아졌다.

분위기가 바뀐 건 대구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다. 4월 기준 대구 시내

미분양 주택은 897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말(280가구)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9만9000가구가 가까운 주택이 분양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주택시장 전망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청약 흥행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구시는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토부에 대구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여기에 무순위 청약 요건 강화도 무순위 청약을 통해 미분양 물량 소진에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다. 4월만 해도 거주 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 없이 무순위 청약이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무순위 청약이 과열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이라도 아파트가 있는 시·도에 사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박종화 기자 pbell@

## “文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

### “돈 안쓰고 25년 모아야 집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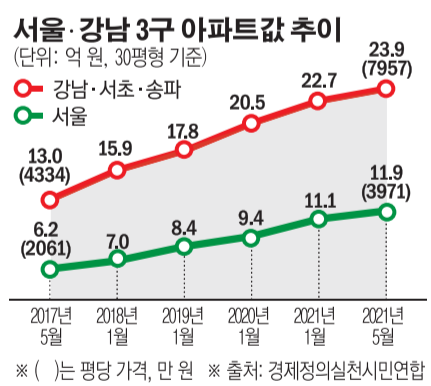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6%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25개 구에서 구별로 세 개씩 표준지 아파트나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를 표본으로 선정해 KB국민은행 시세를, 75개 단지 11만5000여 가구의 공급면적 3.3㎡당 가격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 표본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2061만 원이 었지만 지난해엔 3971만 원으로 올랐다. 이를 공급면적 99㎡(30평)로 환산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6억2000만 원이던 아파트값이 지난해엔 11억9000만 원으로까지 올랐다는 뜻이 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빠르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비강남 아파트 시세는 3.3㎡당 1751만 원에서 3247만 원으로 96% 뛰었다. 이 기간 강남 아파트 시세 역시 4334만 원에서 7957만 원으로 84% 상승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민이 주택을 마련



하긴 더 어려워졌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서다. 평균 가계 가처분 소득만큼 버는 집이 있다고 할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14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서울에 공급면적 99㎡짜리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젠 그 기간이 25년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은 더 무거워져서 소득 하위 20% 가구가 소득을 온전히 모아 서울에 99㎡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은 71년에서 111년으로까지 늘었다.

이런 경실련 분석은 정부가 주장하는 주택시장 추이와 큰 차이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7%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경실련이 분석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79%였다.

박종화 기자 pbell@

## 주택 분양 늘고 수주 잔고 쌓이고

### 금호건설, 쌍끌이 실적 ‘好好’

금호건설이 올해 상반기 분양과 수주,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올해 금호건설이 계획한 분양 물량은 6946가구다. 4170가구를 분양한 지난해보다 목표를 높여잡았다. 금호건설은 올 상반기에 이미 4개 단지에서 3155가구를 분양했다. 이 중 세 곳에서 계약을 100%를 기록하며 ‘완판’ (100% 분양 계약)에 성공했다. 올해 첫 분양 단지였던 세종 ‘세종 리젠

시아 패밀리’는 1순위 청약에 8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평균 183.2대 1까지 올랐다. 지난해 경기 포천 시에서 분양한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포천시 아파트 역사상 두 번째로 순위 내에 청약을 마감하는 성과를 냈다.

금호건설은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이런 선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회사는 올 하반기 서울 강서구 ‘강서 금호어울림 퍼스

티어’ 등 3791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

금호건설은 최근 공사 수주 경쟁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2월 세종시 조지원을 신흥주공연립주택에서 도시정비사업마수결이 수주를 한 데 이어 지난해엔 경기 부천시 ‘대진빌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금호건설이 수주한 첫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이달에도 충북 청주시 사직3구역 재개발 시공권이 금호건설 품에 안겼다. 나라 밖에서도 베트남 렌강(江) 관계시설 공사와 캄보디아 관계시설 공사를 수주하며 동남아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중도금 무이자·무상 확장... 실속형 단지 어디?

분양시장에서 실속형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청약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는 총 4만 9693가구다. 이 중 서울·수도권에서 2만4071가구, 비(非)수도권에서 2만5622가구가 쏟아진다.

그동안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이 높았던 알짜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에는 중도금 무이자에 발코니 무료 확장, 관리비 절감 시스템 제공 등 수요자 자금 부담을 줄인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여름 분양 성수기를 맞

아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수요자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남 김해 '김해올하 더스카이시티 데니스&프라우'는 4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2대 1로 마감됐다. 앞서 2월 분양한 경기 가평군 '가평자이'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내건 실속형 아파트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을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여기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수도권 172개 단지 모두 1순위에서 분양을 끝냈다.



## 삼성물산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

### 지하철 도보 이용, 4043가구 대단지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에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아파트를 7월 분양한다.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36개 동, 전용면적 39~147㎡, 총 4043가구의 대단지다. 이 중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32㎡짜리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49㎡ 212가구 △59㎡A 267가구 △59㎡B 74가구 △72㎡A 158가구 △72㎡B 80가구 △84㎡A 668가구 △84㎡B 606가구 △84㎡C 253가구 △97㎡ 8가구 △115㎡ 2가구 △132㎡ 3가구로 이뤄졌다.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을 관통하는 중앙대로와 우장춘로·금강로·식물원도 인접해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또 경부고속도로 구서 IC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서부산권 만덕에서 동부산권 센텀까지 연결하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2024년 완공 예정이다.

교육 환경도 잘 갖춰졌다. 금정초·장전중·유락여중 등이 반경 1km 이내에 있고 내성고·중앙여고·대명여고·사대부고 등의 학교로 통학도 가능하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부산 주요 상권인 온천



장 상권과 부산대 앞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허심정·홈플러스·CGV 등이 인접해 있다. 롯데백화점·NC백화점 등의 편의 및 문화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다양한 부대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단지별 커뮤니티 센터에는 피트니스·실내 골프연습장·사우나·수영장(2단지) 및 게스트하우스·시니어클럽·어린이집 등이 마련된다. 또한 금정산·금강공원·금강식물원 등의 녹지시설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 광역 교통망 호재...최대 상권 동성로 가까워

현대건설은 대구 중구 태평로3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를 이달 분양한다.

단지는 총 2개 블록, 390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6월에 먼저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는 지하 5층~지상 41층, 전용면적 84㎡ 아파트 총 216가구로 조성된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에비뉴 대구역 퍼스트'도 지상 1~3층에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72가구 △84㎡B 72가구 △84㎡C 72가구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과 직선거리로 약 530m 떨어져 있다. 3호선 달성공원역은 직선거리가 약 500m로 가깝다.

광역 교통망 호재도 안고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구역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 간 61.85km를 전철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개통 시 대구·경북권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침산로·태평로·신천대로·국채보상로 등 주요 도로도 가까워 차량을 통해 대구 도심 내·외곽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이마트 칠성점 번개시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구 최대 중심상권으로 꼽히는 동성로가 인접해 CGV·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시설은 물론 경북대병원·동산병원 등 의료시설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수강공원·달성공원·경상감영공원 등 공원도 단지 와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의 견본주택은 대구 중구 교동 일대에 마련된다.

## 대우건설 대구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 더블 역세권에 학군 우수·5개 대학 인접

대우건설은 대구 남구 이천동 일대에서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아파트를 내달 분양한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는 지하 3층~지상 36층 10개동 총 924가구 규모로, 이 중 6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85가구 △59㎡B 50가구 △84㎡A 200가구 △84㎡B 307가구 △104㎡ 20가구가 공급된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과 3호선 건들바위역이 도보권에 있다. 대구 최심심인 반월당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다. 다양한 버스노선과 달구벌대로, 신천대로, 앞산 순환로 등을 통해 대구 시내·외로 이동하기 쉽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는 대구의 구도심인 남구에 들어서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 대구백화점과 반월당·동성로 상권, 영선 재래시장, 대명문화공연거리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북대병원·남구청·이천 어울림도서관·남대구 우체국 등이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 영선초가 있고, 경상중·대구중·대구고·경북예술고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대구교대, 영남대 의과대학, 계명대 대명캠퍼스,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대구가톨릭대 유스티노 캠퍼



스 등이 밀집해 있다.

남측으로 앞산이 자리잡고 있어 산책·등산하기 좋다. 인근 신천은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돼 있다.

남구 일대에선 최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다. 봉덕1구역을 비롯해 이천동 한마을, 배나물골 등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면 이 일대가 대규모 신형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의 견본주택은 대구 남구 이천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서충주

### 고속도로·철도 이용 수월 교통 요충지

한화건설이 충북 충주기업도시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서충주' 아파트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본격 돌입한다.

한화 포레나 서충주는 충주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포레나' 브랜드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47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77㎡ 153가구 △84㎡A 229가구 △84㎡B 36가구 △84㎡C 60가구로 구성된다.

충주기업도시에는 서울·영남과 서울·강원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통한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인접해 평택·제천·여주·문경 등 주변 도시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82번 국도를 이용하면 시청·터미널·대형병원 등이 있는 충주 도심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동서울(강남)과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 충주역도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보 거리에 서충주어린이집과 중앙탑초·중교, 중앙탑학원가가 자리잡고 있다. 단지 옆에 용전고등학교(가칭)가 2023년 개교 예정이다. 중심상업지구가가깝고, 단지 뒤로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춘 서충주국민체육센터도 건립 예정이다

충주기업도시에는 포스코ICT, 롯데칠성, 현대모



비스, 코오롱생명과학 등이 입주(계획)해 있고 약 3만명이 근무 중이다. 충주첨단산업단지(계획)와 메가폴리스,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계획) 등 총 7개의 산업단지가 갖춰지면 서충주에만 약 5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청약은 7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순서로 진행된다. 충주기업도시에는 전국구 청약지역으로 어느 곳에 거주해도 청약 신청할 수 있다.

홍보관은 충북 충주 연수동 일대에 있다. 입주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 ‘동두천~연천’ 경원선 연장 내년 개통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옥산지구 1블록에서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연천군 내에서 3년 만에 선보이는 단지다.

또 연천에서 1군 건설사가 짓는 첫 민간 분양 단지다. 이 때문에 군내 주택 이동 수요도 많을 전망이다.

분양가는 전용 84㎡형 기준 2억9600만 원으로 3억 원 미만으로 책정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올해 들어 연천과 동두천·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 지역 분양시장 열기가 뜨겁다. 수도권 연결 교통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로 투자 수요도 유입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 양평과 가평, 연천군 등 세 개 군에서 접수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8.3대 1로 지난해 4분기 청약 경쟁률 1.1대 1보다 8배 올랐다.

단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동두천~연천 경원선 전철연장사업은 동두천역에서부터 연천역까지 총 20.8km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내년 개통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 연천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약 40분, 서울 북부지역까지 약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연천BIX(은통일 반산업단지) 개발로 인근 배후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연천초와 연천중, 연천고가 있다. 연천군청과 연천군법원과 연천공영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도 가깝다.

주택 전시관은 내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다.

**GS건설** 평택 지제역 자이

## SRT로 동탄 9분·수서역까지 21분

GS건설은 경기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지제역 자이’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평택 지제역 자이는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3㎡ 총 1052가구로 이뤄졌다. 전용면적별로 △59㎡A 108가구 △59㎡B 106가구 △74㎡A 106가구 △74㎡B 104가구 △84㎡A 260가구 △84㎡B 260가구 △97㎡A 52가구 △97㎡B 51가구 △99㎡P 3가구 △113㎡P 2가구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도보권에 수서고속철도(SRT)와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이 있어 SRT를 이용하면 동탄신도시까지 9분, 수서역까지 21분에 이동할 수 있다. 평택지제역을 출발해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도 운행 중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강남접근성이 우수하다.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평택-화성 간 고속도로, 서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갖췄다. 1번 국도(경기대로), 45번 국도(남북대로), 동삭로 등도 인접해 차량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학교 및 편의시설도 가깝다. 도보권에 초·중·고등학교(예정) 부지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대형 유통시설인 이마트 평택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단지에서 약 6.2km거리



에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었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진위 2일반산업단지, LG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예정)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단지 반경 약 2km에 있다.

단지 주변으로 신도시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영신지구 주변으로는 지제역교지구, 모산영신지구, 동삭지구, 세교지구, 소사별지구, 용죽지구, 현촌지구 등 14개의 도시개발지구가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에 있다.

## 구봉산 관광단지·어린이 테마파크 개발 호재

**포스코건설** 더샵 광양 베이센트

포스코건설은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더샵 광양 베이센트’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한다.

더샵 광양 베이센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높이로 5개 동이 들어선다. 총 727가구로 전용면적과 평면별로 △84㎡형 434가구 △114㎡ A형 115가구 △117㎡ A형 170가구 △139~145㎡형 8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중·대형 위주로 단지를 구성했다.

더샵 광양 베이센트는 포스코건설이 광양시에서 처음 ‘더샵’ 브랜드를 붙이는 아파트다. 광양제철소 등 포스코그룹 핵심 사업장이 있는 곳인 만큼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포스코건설 측 설명이다.

단지 내엔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펫 그라운드를 포함해 스카이라운지와 물놀이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실내 공간은 4베이(방 2개를 거실 전면에 배치하는 설계) 판상형 구조와 4베이 3면 개방형 구조 등으로 설계를 다양화하고 공간감을 확보했다. 알파룸과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배치해 공간 활용도도 높였다. 단지 맞은편 초등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황금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EZ) 중심에 있어 광양제철소 등을 출퇴근하기 편하다. 2030년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울촌산단이나 여수공항을 오가기도 좋



아진다. 더샵 광양베이센트는 구봉산 관광단지와 어린이 테마파크 등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수혜 단지로도 꼽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지역 랜드마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품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

## 부산신항 항만·물류 종사자 출퇴근 용이

부영그룹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를 공급한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높이로 두 단지를 합쳐 1368가구가 공급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우선 분양 전환권을 받는다. 후분양 아파트(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은 계약을 맺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 유형은 전세와 월세로 나뉘어 있다. 전세보증금은 1억3000만 원이다. 월세는 보증금 1억1000만 원·월 임대료 10만 원이나 보증금 5000만 원·월 임대료 33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84㎡다.

아파트는 부산신항과 가까워 항구에서 일하는 항만·물류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기 좋다. 신항동로를 거쳐 서부산과도 이어져 있다.

최근 서부산에는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경남도와 부산시 등은 진해와 인접한 부산 가덕도에 김해국제공항을 대신할 신공항을 지으려 한다. 을숙도 등 단지 주변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즉시 입주 가능하며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 견본주택은 용원동에 있다.

**금호건설** 포천 금호어울림 센터럴

## 편의시설 풍부, 고속도로로 서울까지 20분

금호건설이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서 ‘포천 금호어울림 센터럴’ 아파트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터럴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높이로 6개 동이 들어선다. 포천시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다. 총 579가구로 가구당 전용면적은 84㎡다. 2023년 12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터럴은 하나마트, 포천반월아트홀, 종합운동장, 청성역사공원, 포천체육공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가깝다. 주변 교육시설로는 포천초와 포천고, 포천일고 등이 학군을 이루고 있다. 걸어서 9분이면 포천용정 일반산업단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도 편리하다.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0분대에 서울에 진입할 수 있다. 도보로 10분 거리(750m)엔 2028년 수도권 전철 7호선 포천역이 개통한다.

금호건설은 단지를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 효과를 극대화했다. 실내엔 알파룸과 드레스룸, 가변형 벽체가 설치돼 입주자 취향에 맞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어린이



이집, 경로당, 도서관,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비규제지역인 포천시에선 담보인정비율(LTV·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을 최고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데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호건설은 입주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계약금 정액제(1000만 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포천 금호어울림 센터럴 견본주택은 포천시 선단동에 있다.

# BEYOND GOLF



현존 드라이버 사상 최대사이즈의 스위트팟 영역

##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C.O.R 0.87 이상의 고반발 드라이버 기준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스윙 2,000번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사이즈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세계 최대의 페이스/스위트팟 넓이를 통해 임팩트시 빗맞아도 최대한 똑바로 가는 타구를 제공
- 아마추어 골퍼의 약점인 슬라이스와 훅이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할 수 있다
- 총중량 223g-255g의 최경량 수준으로 가볍고 편해서 다루기가 매우 쉬우며 부담감이 없다. 스윙스피드가 빨라져 더 긴 비거리가 나간다.
- 비온드 센터 방문시 PGA프로들이 사용하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실내 분석 시스템으로 고객의 스윙을 정밀 분석 / 비거리에 초점을 둔 1:1 원포인트 레슨 제공
- 런을 극도로 많이 나오게 하는 비온드만의 I.M.T(Impact Maximum Technology)구조로 최대한 스프링을 억제하여 착지 후 다량의 런 발생으로 비거리 상승 효과
- 근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니어층에게 비거리와 방향성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를 극한까지 높인 새로운 성능의 차세대 고반발 드라이버

**기존 고반발 클럽보다 더 나간다 | 비온드는 비거리로 증명합니다**



비온드골프 강남점 / 분당점

비온드 센터 방문시 반드시 고객님의 클럽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드의 "특별한 비거리"를 실감하기 위해 자신의 최대 비거리가 나오는 클럽과 비교하면서 시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결과 10명중 9명이 '비온드'쪽이 더 긴 비거리와 늘어난 런이 나온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

# “ESG는 기업 실천과제 넘어 산업사회의 화두”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경쟁력 강화 키워드로 꼽아

창립 68주년 맞아 사업부제 성공적 안착 위한 소통 강조  
안전사고 방지 “위험요인 발견 댄 내게 직접 건의해달라”

안동일(사진) 현대제철 사장이 회사 경쟁력 강화의 키워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꼽았다.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안 사장은 10일 회사 창립 68주년 기념사에서 “ESG에 충실한 활동을 통해 회사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SG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그는 “ESG는 기업 실천과제를 넘어 산업사회 화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이런 양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 또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사회적 흐름에 맞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생산 설비에 코크스 건식냉각설비(CDQ)를 설치하고 있다. CDQ는 제철 공정 중 석탄 원료로부터 코크스(석탄가루를 고열 처리해 만든 덩어리)를 생산한 후 냉각하는 설비다. 냉각가스를 순환시켜 수증기 배출을 억제해 환경 오염을 줄인다.

안 사장은 “오늘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충실도에 더 높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 방식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 항상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4월에 도입한 사업부제의 성공적



안착도 강조했다. 사업부제는 기존 기능별 조직체계에서 고로, 전기로 등 사업 단위가 중심이 되는 조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안 사장이 직접 도입한 것이다.

안 사장은 “(사업부제가 자리 잡기 위해

서는)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소통의 조직 문화가 수반되지 않은 조직개편은 형식적 변화에 그칠 것이다. 이는 오히려 전에 없던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사적으로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조직체계 장점을 끌어냄으로써 사업 부제가 지향하는 다양한 성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사장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그는 “노사가 함께 안전 분야 개선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터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라며 “평소 생각 해온 안전과 관련한 의견이나 새롭게 발견한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 안전 관련 부서나 본인에게 직접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명대 기자 yeongdai@

‘취임 1년’ 김옥찬 휴앤쇼핑 대표  
“中企육성 설립취지 잊지 말자”

김옥찬(사진) 휴앤쇼핑 대표이사 취임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휴앤쇼핑의 설립 취지를 잊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격려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대표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 편성비율 80% 유지, 업계 최저수준의 수수료, 판로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설립 취지를 성공적으로 실현해왔다”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급변하는 영업환경과 과도한 경쟁에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원 모두 열정과 노력을 발휘해 앞으로 10년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취임 이후 준법·윤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윤리현장 제정 △신문고 제도 정비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휴앤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해 이날 과기부로부터 5년 승인장을 받았다.

휴앤쇼핑은 올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향후 더 큰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중소기업 상생을 지속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다원 기자 leedw@

‘석다방’ 앞치마 두른 조석 현대일렉트릭 대표

부부장 3명과 출근길 직원들에 간식 건네며 대화

현대중공업그룹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캠페인 이벤트를 열었다.

조석 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사장)는 23일 경기도 분당사무소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도넛과 커피 등 간식을 전달하는 ‘석다방’ 행사를 가졌다. ‘석다방’은 조석 대표의 이름을 딴 소통 이벤트로,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젊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석 대표와 부부장 3명은 오전 7시부터 사무실 입구에서 조석 대표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석다방’ 앞치마를 착용, 간식과 아침 인사를 건네며 직원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이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또 사내 휴식공간에는 근무 인원을 고려해 400개의 도넛과 커피를 비치, 직원들이 일과시간 중 자유롭게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대일렉트릭은 2월부터 후배가



조석 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가 23일 분당사무소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도넛과 커피를 전달하며 인사를 건넨고 있다.

선배에게 젊은 세대의 문화 등을 전달하는 ‘역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표이사 주관 임원회의에 직원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는 참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기업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박찬구 회장 아들·딸 동시 승진  
박준경 부사장·박주형 전무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아들과 딸이 동시에 승진했다.

23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최근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왼쪽 사진) 금호석유화학 전무와 딸 박주형(오른쪽) 구매·자금 담당 상무가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했다.

1978년생인 박준경 부사장은 지난해 7월 전무로 승진한 지 11개월 만에 승진했다. 1980년생인 박주형 전무는 2015년 상무로 입사했다.

박찬구 회장은 최근 금호석화 대표이사 와 동기이사직을 내려놓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남매 승진으로 3세 경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올해 3월 ‘조카의 난’을 일으켰던 박철완 전 상무와 박 부사장은 동갑내기 사촌이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현대차, 군산 신시도휴양림  
숲길 조성 ‘국민의 숲’ 협약



현대자동차가 정부 기관, 소셜벤처와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22일 전북 군산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서 산림청 산하 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나무심기전문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함께 국유림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민의 숲’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4월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내에 친환경 숲길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에 친환경 체험 공간 ‘아이오닉 포레스트’를 조성한 바 있다.

3월 개장한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은 여의도 면적 3분의 1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약 120헥타르) 국립 휴양림이다. 현대차 등은 휴양림 안에 있는 ‘태양 전망대’ 길목 좌우 150m 구간에 동백나무 300주, 산수국 1000주, 철쭉 1000주 등 총 2300그루의 교관목을 심어 숲길을 조성해 휴양림을 찾아온 고객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휴양림 부지 제공과 관리를, 현대차는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트리플래닛은 숲길 식재를 각각 담당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2019년 트럼프 방일 때 ‘하루 1억원꼴 접대’

나홀 일정 총 4억1300만원 지출  
롯데기 4인 만찬에만 2100만원

일본이 아베 신조 정권 시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민 방문했을 때 저녁 한 끼 비용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접대 비용으로 4억 원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일본 아사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19년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본의 국민으로 맞이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가 약 4022만 엔(약 4억1300만 원)이라는 답변서를 전날 각의에서 확정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홀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하루에 1억 원꼴로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재미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아베 전 총리인 만큼, 일본 정부의 지출 명세 곳곳에서 트럼프



2019년 5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부부와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부부가 도쿄 롯폰기의 한 화로구이 전문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날 만찬을 위해 206만 엔(약 2100만 원)이 들었다. 교도연합뉴스

전 대통령을 극진하게 대접한 정황이 엿보인다. 외국 정상이 오면 주로 관용 시설에서 만찬을 여는 것과 달리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본 도쿄 시내의 고급 음식점으로 초대해 ‘비공식 만찬’을 했는데 이때 지출한 비용만 2000만 원 이상이다.

### 부음

- ▲차동하(서울대 동양학과 교수) 씨 별세, 손나리 씨 남편상, 차연서 씨 부친상 = 2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20분, 02-2258-5940
- ▲백중천(전 전남 곡성군 삼기면장) 씨 별세, 백봉순(사업)·익순(진야건설 부사장·전 광주은행)·공순(GS건설)·효순(사업)·연순·연화(사동초등학교 교장)·연실 씨 부친상, 이성모(전 포스코 광양제철소)·박한환(사업)·안준식(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부 1 제강공장) 씨 장인상 = 22

- 일, 광주 VIP장례타운 201호, 발인 24일 오전 11시 30분, 062-521-4444
- ▲이호연 씨 별세, 김용국(수출입은행 모빌리티금융부 기계계속팀장) 씨 모친상 = 22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4일 오후 1시 30분, 02-2030-4444
- ▲서용진 씨 별세, 서태범(인하대 연구혁신본부장)·태일(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혜련 씨 부친상, 정복현(삼흥열앤씨 대표) 씨 장인상 = 22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25일 오전 9시, 010-9193-7327
- ▲정병연 씨 별세, 이상재(현대하이카

- 손해사정 대표이사) 씨 모친상 = 23일,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055-249-1400
- ▲박연씨 씨 별세, 정진홍·정희·진두·진부 씨 모친상, 이종태(전 국제신문 부사장) 씨 장모상 = 23일,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농협장례식장 2층 3분향소, 발인 25일 오전 6시, 061-840-7777
- ▲김유호 씨 별세, 김동원(대한항공 기장)·정희(전 동아일보 기자) 씨 부친상, 박찬욱(전 KBS 부산총국장) 씨 장인상 = 23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 02-3779-2190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장급 전보 △국정경제관리관 한경필 △공직복무관리관 장영현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임용 △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신정도 △국내대책과장 이고은
- ◆삼성KPMG ◇부대표 △김이동 △서지희 △석명기 △손호승 △이관범 △이동석 △이용호 △임근규 △전철희 △한원식 ◇전무 △김민수 △김상훈 △김현중 △노원 △리양카오(Cao, Liang) △서무성 △송정화 △이동근 △이상길 △이정수 △정윤호 △정창길 △정현 △조승희 △진형석 △한기원 △현승민

자본시장 속으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화웨이는 공교롭게도 글로벌 2위에 오르고 삼성전자 추월을 공언한 이후에 미국의 고강도 제재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샤오미도 위협했지만 제재를 피했다. 화웨이에 눌러 위축돼 있던 샤오미, 오포, 비보가 모두 날개를 단 듯하다. 삼성전자로서는 더욱 어려운 싸움일 수 있다.

‘대륙의 실수’라 칭하며 한 수 아래로 있던 샤오미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샤오미는 얼마 전 스마트폰 시장에서 3년 내에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공언(公言)했다. 공언(空言)이 아닌 듯싶다.

화웨이의 몰락과 LG전자의 철수가 스마트폰 시장의 지각변동을 촉발했다. 2년 전만해도 2억4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았던 화웨이의 점유율 16%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다. 지금까지 최대 승자는 샤오미다. 4월 기준으로 점유율이 1년 전보다 6.7%포인트나 상승했다. 그 뒤로 애플, 오포, 비보 순으로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1.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상위 5개사 중에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당초 삼성전자의 수혜가 클 것이고, 부품 업체들에 따듯한 온기가 전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갔다.

코로나는 수요 양극화를 초래했다. 프리미엄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12 시리즈를 앞세워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화웨이의 공백을 중국 안에서는 오

포와 비보가 흡수하고, 중국 밖에서는 샤오미가 흡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플래그십인 갤럭시 S 시리즈의 판매 성과가 미흡하고, 주력 시장인 유럽과 중남미 등에서 샤오미의 거센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샤오미의 약진 배경을 살펴보자. 최근 4월에 14.3%의 점유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동시에 글로벌 3위로 도약했다. 샤오미의 주력 시장인 인도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수요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신흥아시아에서 고르게 선전했기 때문이다. 신흥아시아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입지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고, 동유럽에서는 점유율이 25%를 넘어섰다.

특히 유럽 시장 내 약진이 위협적이다. 삼성전자의 텃밭이기 때문이다. 샤오미는 4월에 유럽 시장 점유율 20%로 애플을 넘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1월 이후로 점유율이 2배 이상 급성장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에서의 성공이 인상적이다. 스페인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와 러시아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들 3국의

공통점은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크다는 점이다. 샤오미의 최대 강점인 ‘가성비’가 빛을 발하고 있고, 300달러 이하 모델들이 잘 팔린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샤오미처럼 가성비가 전부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프리미엄 폰 영역에서도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유럽 내 250달러 이상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지난해 1분기 9%에서 올해 1분기는 31%로 상승했고, 유럽 프리미엄폰 매출이 4배 증가했다. 플래그십 모델인 Mi 11 울트라를 앞세워 전세계 800달러 이상 초프리미엄폰 시장에서 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분발해야 한다.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운명을 같이하고, 고용, 투자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얕은 데 덮친 격으로 인도와 베트남의 코로나 재확산이 생산지 전략에 있어 큰 약재이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대신할 폴더블폰을 앞세워 프리미엄폰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보급형에서는 갤럭시 A와 갤럭시 J 시

리즈 등의 차별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샤오미의 강점 중 하나인 온라인 채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LG전자 철수에 따른 수혜는 삼성전자에 집중될 것 같다. LG전자는 지난해 기준 24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아 1.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 미국, 중남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지위를 유지했다. LG전자 프리미엄폰 수요는 대부분 한국에 집중됐고, 삼성전자가 흡수할 것이다.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점도 우호적이다. 미국 선불제 저가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화웨이는 공교롭게도 글로벌 2위에 오르고 삼성전자 추월을 공언한 이후에 미국의 고강도 제재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샤오미도 위협했지만 제재를 피했다. 화웨이 에 눌러 위축돼 있던 샤오미, 오포, 비보가 모두 날개를 단 듯하다. 삼성전자로서는 더욱 어려운 싸움일 수 있다. 삼성전자의 성공 DNA인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책발언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6개가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어촌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어가 인구는 23.7%가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고령화율도 36%로 전국 평균의 배를 크게 웃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5년에는 어촌지역의 약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신호도 있다. 작년 귀어·귀촌지원센터에 신청한 상담 건수는 7240건으로 5년 전보다 4배 증가하였다. 이는 어촌에서의 새로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어촌에서의 행복한 동행, 귀어·귀촌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어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전남 신안군은 귀어·귀촌인과 청년 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 제공해 더 쉽게 어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 충남은 어촌계 가입비를 대폭 낮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5년 만에 신규 어촌계원 수 500명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선 어촌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3억7500만 원까지 창업·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청년의 경우 최대 월 100만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귀어 학교를 통해 현장 위주의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어촌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귀어·귀촌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인 마을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를 통

해 고령의 어업인과 귀어·귀촌인 간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등 다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어촌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낙후된 어촌 환경 때문에 귀어·귀촌을 망설이던 사람들도 주저하지 않고 귀어·귀촌을 결심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 300개의 어촌을 매력 넘치는 곳으로 재탄생시키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지역과 소통하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방파제, 부두 등 오래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매년 귀어·귀촌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귀어·귀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보다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7년 차를 맞는 박람회는 ‘바다로,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와 온라인(www.sealifeexpo.co.kr)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특별히 1년간 어촌에서 직접 살아 보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슬기로운 어촌생활’에 참가할 예비 귀어·귀촌인을 선발한다. 이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으로 정책을 설명해 주는 토크 콘서트와 선배 귀어·귀촌인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버스킹도 진행한다. 온라인의 경우 어촌마을을 3D로 구현해 어촌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화상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귀어·귀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다.

어촌은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잡는 어업에서 나아가 미래 유망산업인 양식업, 갯벌이나 해수욕장 같은 관광자원을 활용한 어촌산업까지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정부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어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투데이, 말투데이

☆ 마르바 콜린스 명언  
“성공은 저 스스로 오지 않는다. 당신이 성공을 향해 가야 한다.”

미국 교육자. 그녀는 시카고의 공립학교 시스템이 학습 장애로 분류한 저소득층 흑인 아이들을 위한 사립 초등학교를 1975년 설립해 30년간 운영했다.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그녀에게 교육부 장관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학생을 교육했다. 그녀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936-2015.

☆ 고사성어 / 난생어치(亂生於治)  
적에게 짐짓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엄정한 질서를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적을 어지럽히는 것은 아군의 질서정연함에 달려 있고, 적을 두렵게 하는 것은 아군의 용기에 달려 있고, 적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아군의 강함에 달려 있다[亂生於治 怯生於勇 弱生於強].” 출전 손자(孫子) 병법 병세(兵勢)편.

☆ 시사상식 /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겼다가, 진출 국가에서도 임금 상승 등 비용 문제에 직면하자 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리쇼어링’의 순화어로 ‘국내복귀’를 권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가계  
임시로 자그마하게 지어 물건을 팔던 집가가(假家)가 변음되었다.

☆ 유머 / 국회란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사람이 제과점에 들렀다. 빵과 도넛을 산 뒤 점원에게 “그 빵에 방부제가 안 들어갔다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라고 농담을 건넸다. 직원이 “그럼요.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아요?”라고 반문했다. 점원의 응수. “그럼요, 국회로 가게 되죠.”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노우리 산업부/we1228@

삼성 ‘무노조 폐기’ 선언 1년

사관계 자문그룹과의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이사과 노조의 만남도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가 임금 협상 결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 노조 측에 연락해 만남을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는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문화를 구축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일어난 변화들이다.

이 같은 변화엔 단기적으로는 경영 환경에 부담이 돼도 선진경영 문화가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중요시한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는 않다. 일례로 삼성디스플레이에선 대표이사까지 나섰음에도 끝내 노사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이 벌어졌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측도 노조도 서로를 알아가고 대처하기 위한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때론 거센 갈등도 치열한 기싸움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건 노사 갈등의 지향점은 ‘공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의 해결 과정이 지난하지 않을 리 없겠지만, 이번 사태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 본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장석주의 시각 시인·인문학 저술가



# 동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 왔다. 이것은 뜻밖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온 반려묘 이야기다. 작은 두상(頭狀), 푸른 빛 도는 옥 같은 눈동자, 흰 눈을 뒤집어 쓴 듯 하얀 터키시 앙고라 고양이 한 마리가 어느 가정에서 임시보호를 받다가 왔다. 어린 고양이는 우리 집에 와서 '당주'라는 이름을 얻었다. 애초 나는 고양이를 집에 들이는 일에 반대를 했는데, 이는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막중한 무게 때문이었다. 아내의 간절함에 입양을 반대한 의사를 철회했지만 생명을 책임지는 그 무게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고양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하는 눈치였으나 하루 이틀 지나자 잘 적응했다. 먼저 집에서 밤마다 울어서 집사를 성가시게 했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고양이는 첫날부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실과 서재, 방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탐색했다. 고양이는 소파의 위치, TV 같은 거실의 붙박이 가구들의 방향, 은신하기 적당한 구석들, 모든 움직이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가의 높은 곳을 유심히 살폈다. 천장과 맞닿는 서가 꼭대기로 가볍게 도약하는 고양이의 솜씨는 감탄할 만했다. 고양이는 낮이건 밤이건 많은 시간을 잠지는데 쓴다. 그 밖에 깨어있는 시간엔 장난감을 갖고 사냥놀이를 하거나 창밖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나 가끔씩 나뭇가지로 날아드는 새들의 움직임을 쫓는다. 그리고 날마다 관내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경찰관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본다. 고양이의 탐색은 영역 동물다운 행동이다.

고양이는 낮 동안 창밖 풍경을 내다보고, 사료를 먹고, 낮잠을 자며, 하품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루밍을 한다. 돌기가 돋은 거친 혀로 제 털을 가다듬는 그루밍은 고양이의 빼놓을 수 없는 일과 중 하나다. 고양이는 왜 그토록 열심히 그루밍을 할까? 그루밍은 고양이가 제 몸을 깨끗하게 건사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제 털에 묻은 사냥한 먹잇감의 냄새를 지워 포식자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던 야생의 습관에서 비롯된 행동일 테다. 고양이의 세계에서 그루밍은 탐색하기, 포획하기, 죽이기, 먹기, 잡자기와 같이 중요한 행동이다. 우리 집에 온 고양이는 건식보다 습식 사료를 더 좋아하고, 우리 몸에 제 몸을 부비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밤에는 우리 침대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제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우리를 따라다니며 연신 야옹 소리로 먹이를 보려는 모습은 사랑스러웠다. 고양이가 소파에서 우리의 쓰다듬는 손길에 반응하며 갈비뼈 아래에서 연신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낼 때, 우리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곧추세운 채 부르르 떠는데, 그때는 우리도 덩달아 행복해졌다.

고양이의 눈동자는 아름답지만 그다지 쓸모가 있지는 않다. 고양이는 눈동자보다 수염이나 긴 꼬리가 생존 이익에 더 기여한다. 고양이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할 만큼 청각 능력이 뛰어나지만 근거리 시

각은 썩 좋지 않다. 고양이가 시각보다는 입술 위쪽과 뺨에 난 뺨뺨한 수염들을 이용해 제 주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고양이 수염에 뇌의 체성감각피질과 소통하는 수용기가 많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수염으로 온도나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제가 움직일 공간의 넓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고양이가 사냥할 때 이 수염은 긴장으로 뺨뺨해지는데, 수염으로 먹잇감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신실한 수도사 같이 견결하고, 아주 높은 곳으로 도약할 때는 새 같이 가볍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고양이 걸음 걸이를 보며 "우리 고양이 걷는 것 좀 봐. 참, 우아해. 마치 호랑이가 걷는 거 같애"라고 감탄했다. 이 낯선 손님의 길쭉한 허리를 쭉 펴고 진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움직이는 자세에서 맹수의 위엄마저 느껴졌다. 이들은 야생 고양이 시절부터 품은 맹수의 습관을 갖고 살아간다. 고양이는 가축화된 동물 중에서 신체적·생리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람 곁에 온 야생의 존재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 삶의 권리나 학대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일까? 자연 안에서 인간이나 동물은 동등하게 제 생명을 제 방식대로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는 진지하게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적으로 쉬이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이다. 고양이는 사람에 더부살이를 하며 그 쓸모가 거의 없는 밤의 파수꾼, 혹은 새 사냥꾼으로 살아가지만 제 안의 독립적 성향을 포기하지 않는다. 고양이의 내면에 깃든 이 야성은 화강암 같이 단단한 고양이의 숙명일 테다. 하긴 살행이나 삶, 그보다 몸집이 큰 치타나 호랑이는 고양이와 같은 고양잇과 동물이니, 식성이나 습관, 걸음 걸이 따위가 다를 수도 있겠다.

지금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집고양이는 마흔 종을 웃돌고, 그 조상은 아프리카 들 고양이이라고 한다. 고양이는 근동 지방에서 집고양이로 더부살이를 시작하는데, 이는 약 85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다. 2500년 전 그리스, 인도, 극동 지역,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퍼져나갔고, 오늘날엔 남극 대륙을 빼고 지구상 모든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집고양이는 가축화된 동물 중에서 특별하고 예외적이다. 노동이나 고기를 제공하는 다른 가축화된 동물과는

달리 고양이는 심미적인 매력 때문에 반려동물로 인간의 선택을 받았다. 고양이의 신체에서 생산되는 것들에서 사람이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고양이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반려 관계, 감정적 교감, 즉 애착과 사랑을 통해 굳세지는 정서적 유대감이 전부다.

고고학과 역사학의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르면 야생 동물의 가축화가 시작된 것은 대략 1만5000년 전이다. 가장 먼저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한 동물은 개다. 개는 사냥, 목축, 방호, 경주, 짐을 나르는데 쓰기 위해 길들여졌다. 그 다음 염소, 양, 돼지, 소 등이었다. 말, 당나귀, 낙타, 물소, 야크, 닭, 오리 등이 뒤를 이었다. 동물의 가축화는 인간과 동물이 환경과 자원을 공유하는 한에서 상호 이익이 되었다. 야생 동물은 자유와 야생성을 포기한 대가로 인간에게 은신처와 먹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다. 반면 동물은 인간에게 젓과 털, 가죽, 피, 배설물 따위를 주고, 농업이나 목축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인간은 사육 목적에 맞춰 인위적인 교배로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 돼지나 육우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게 자신의 신체를 바꾸었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은 항상 상호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협력을 한 게 아니다. 동물의 가축화가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이루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이다. 동물의 가축화는 동물의 신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사는 가축화된 동물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개량된 존재들, 즉 유전적 조작, 인위적 거세, 부리 자르기 등과 같이 신체를 비가역적으로 바꾸는 시도가 이어진 결과물들이다.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람 곁에 온 야생의 존재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 삶의 권리나 학대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일까? 자연 안에서 인간이나 동물은 동등하게 제 생명을 제 방식대로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동물은 가축화되면서 그 권리를 잃었다. 우리는 진지하게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동물은 사회적으로 인류의 핏박받는 열등한 형제이고, 철학적으로 '세계의 가난'이며, 정치적으로 인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지다. 인간은 동물을 도축하고, 신체를 분해하며, 젓과 고기와 가죽을 빼앗는다. 가축화된 동물은 신체와 본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 길들여진 개는 먹이와 보금 자리를 얻고 그 대신에 야생에서의 생존 능력과 종의 다양성을 상실했다. 유기견이나 버림받은 집고양이는 야생에서 적박한 생애를 보내다가 턱없이 짧은 생을 마친다. 질병이나 로드 킬, 혹은 인간의 학대로 그 누구의 애도도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은 당연한 일인가? 우리의 양심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동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시설

##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개정된 '노조 3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철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결국 사유가 있는 노조에 행정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조항도 34년 만에 폐지한 것 등이 골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노조에 편향된 내용 일색이다.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어장치도 없다.

기업들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해고자·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사업장에 임의로 드나들고, 이들이 해고자 복직요구 등 근로조건이나 복지를 넘어선 정치투쟁을 벌이면서 사업장을 점거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선진국들처럼 직원 아닌 노조원이 사용자 승인 없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행령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 기준이나 활동범위가 빠져있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 때부터 노조가 사업장의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것

을 금지하고,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었지만 묵살됐다. 미국·유럽·일본 등은 대체근로를 통한 사측 대항권을 인정한다. 노조 전임자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이 적법하지 않은 노조를 제재할 수단도 없어졌다.

노조의 권한만 강화하고 사용자의 손발을 묶는 이런 제도로는 노사갈등이 더 커져 산업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기업경영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영계가 다시 시행령의 보완과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국내 기업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조의 경경투쟁 관행,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최대 걸림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이 해마다 내놓는 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해마다 쪼들려 수준이다. 최근 IMD 분석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64개국 가운데 37위로 작년(28위)보다 더 추락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로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노조의 힘은 더 세지고, 기업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는 현상만 가속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경쟁력 추락, 기업이익 상실, 한국 경제의 역주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상담소

### "그냥저냥 사는 거"라는 어른신들

얼마 전 동료와 함께 지역 내 한 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70대의 어른신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를 살피더니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오호"하고 쾌재를 불렀다. 이곳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고령층과 1인가구가 많다 보니 사회복지사로서 주시하고 있는 문제가 '고립과 관계 단절'인데, 우리가 '낯선 사람'임을 안다는 것은 적어도 이웃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반가웠다. 사회적이든 상황적이든 고립을 선택하고 관계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있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다는 표현이라 마음 한편이 놓였다.

어르신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하니 대뜸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 한 어른신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좀 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환영하고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라 뜻밖이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65세 인구 독감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아니던가? 그런데 예방접종을 거부한다니. 어리둥절해 그 이유를 물은 나는 이내 이해가 됐다. "다 살았는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예방접종이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냥 사는 쪽을 선택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머지않아 다가올 나의 노년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사는 건 재미

있으세요?"하고 물으면 어른신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그냥 그래, 맨날 똑같지 뭐", "재미는 무슨 재미, 그냥저냥 사는 거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파온다. 인생의 휴식기로 가장 큰 활기분함을 맛볼 수 있는 시기가 노년이라고 하지만 많은 어른신들의 말을 들 어보면 사는 낙이 없어서,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체념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나이가 든다고 꿈도 욕망도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사는 게 그렇지, 사는 게 별건가" 혹은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들로 노년의 삶을 치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은퇴하고 몸은 쇠약해지고,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노년의 일상이란 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이지 않은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3세임을 감안할 때, 젊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는 시간 이후 높고 아프지만 적게는 23년, 많게는 40년을 살아야 한다. 이 시간 속에 놓인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른신들의 삶이 '즐거는 삶'이기 보다 '견디는 삶'인 것 같아 안타깝다. 무념무상의 삶, 우리 모두의 노년의 삶이 '마음이 빈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떠나 '마음을 비운 상태'의 평온한 삶이 있으면 좋겠다. 이 또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김현주 서울 강서구보건소 사회복지사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물속에서 그의 꿈은 자유로워진다

서울체고 3학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2020년 그는 자유형 100m에서  
새로운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자유형 200m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세계 주니어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제 그의 꿈은 더 큰 무대를 향한다

도쿄를 넘어 파리까지  
꿈을 향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KB는 황선우 선수의 꿈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KB금융그룹

서울체고 수영선수, 황선우

 KB 금융그룹